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매사추세츠 아시안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단일 인구로는 흑인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표성 측면에서 아시안을 대표하는 의원이거나 시의원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사진- Sasin Tipchai from Pixabay)

매사추세츠, 아시안 흑인 인구 넘어섰다

아시안 히스패닉보다 더 빠르게 늘어, 45.2% 증가
아시안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미들섹스카운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주내 아시안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인종으로 나타났다. 아시안은 2020년 현재 2010년에 비해 45.2%(158,166명)가 증가한 494,029명으로 13% 증가에 그친 흑인 인

구 494,029명을 넘어섰다. 히스패닉은 41%가 증가한 887,685명이었다. 2020년 매사추세츠 전체 인구는 약 700만 명(7,029,917)이었으며 백인은 7%가 감소한 489,037명으로 전체 69.6%를 차지했다.

2020년 미 인구조사국의 정보에 따르면 아시안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미들섹스로 카운티 인구 12.9%에 달하는 210,462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다. 두번째로 많은 곳은 노퍽카운티로 전체 카운티 인구 12.2%에 달하는 88,512명이며, 서퍽카운티에는 카운티 인구의 10.2%에 달하는 81,140명이 거주해 세번째를 차지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8면으로 계속

9월 그레이터 보스톤 주택가격 상승 멈췄다

가격상승에 구매포기 늘면서 가격상승 둔화 나타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9월 그레이터보스톤 주택시장이 완전히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지칠줄 모르고 치솟았던 집값이 10월에 접어들면서 가격상승은 둔화되고 주택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다.

매사추세츠 동부 6개 도시의 부동산 거래를 추적하는 그레이터보스톤부동산중개인협회의 19일 발표에 따르면 9월 단독주택의 중간 가격은 \$750,000로 2020년 9월에 비해 10% 상승했지만 지난 8월에 비해 4% 낮아졌다. 또한 지난 6개월 동안 가장 낮은 중간가격이었다. 콘도미니엄의 중간 가격도 \$620,000로 지난 여름에 비해 5%상승한 가격이지만 지난 여름에 비해 낮아진 가격이다.

이 같은 가격 둔화는 단독주택의 거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나 낮아지면서 시작됐다 또한 전통적으로 비싼 ▶▶11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KATHY SONG

고객만족도 평가 5/5을 보여주는 고객 최우선 서비스를 약속 드립니다. 주택, 상가, 비즈니스 매입 매매 상담 환영합니다.

- Chicopee : 커머셜 빌딩+드라이 클리닝, 월 인컴 만불에 사무실 렌트 추가 수입 월 \$600, **매매 \$285,000**
- Westfield : 위치 좋고 단골 고객 형성 잘된 네일 살롱 **매매 \$127,500**
- Holyoke : 현 100k 커머셜 건물 + 드라이 클리닝 비즈니스 **매매 \$175,000**

Call Kathy 413.313.4165
Micki 413.507.1402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Korea licensed
Multi -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bostonpremierrealty.com

포장포스 포장재

한국에서 포장재를 안전하고 저렴하게 수입하세요!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주문제작 사이트
포장재를 원하는 대로 전문가와 쉽고 빠르게!
www.pojangboss.com

기성품 사이트
프랜차이즈 용품 등 모든 게 한곳에!
www.pojangboss.com

민주평통 보스턴협의회 20기 출범식 가져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장명술 기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턴지역협의회는 20기 출범식을 보스턴 소재 더블트리바이힐 호텔에서 20일 개최했다.

오후 6시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출범식에서 이석현 민주평통 수석부회장은 한선우 보스턴협의회장을 비롯해 52명의 보스턴지역 위원들 한명 한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19대에 이어 20대 보스턴 평통회장을 연임한 한선우 회장은 개회사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 보냈던 19기 평통의 활동들을 돌아보며 소개하고 “20기 평통에서는 한인사회의 화합과 단결, 발전을 통해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고 평통의 지침에 따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 회장은 또 “해외에서 나랏일을 하고 있다는 한 평통위원의 말이 항상 가슴을 뜨겁게 한다” 며 “우리 모두 나랏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평화통일에 앞장서자” 고 독려했다.

최광철 미주 부회장은 “5월 20일 연방 하원에서 종전선언과 평화선언, 비핵화 인도적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을 논의할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여행금지조치 해제검토 등을 요구하는 역사적인 한반도 평화법안 HR 3446이 발의됐다” 며 이 법 발의 자체만으로

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교육의 도시 보스턴 자문위원들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 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6, 7면)

유기준 총영사는 “한인사회가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자문위원수가 54명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며 “학문과 첨단산업의 메카로 국제여론을 선도하는 뉴잉글랜드 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기대의 발로가 아닌가 생각한다” 고 말했다.

유 총영사는 “향후 2년 임기동안 우리의 평화통일에 대한 비전을 동포들에게 전파하고, 특히, 동포 2-3세대들과 같이 차세대를 책임질 젊은이들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서영애 한인회장은 “19기 보스턴 평통의 활약은 참으로 대단했다. 마스크 나눔에서 공공외교 그리고 각종 평통 공모부분 상을 휩쓸었던 것은 한선우 회장, 장수인 수석부회장 등 임원진들의 활약과 평통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한 것” 이라고 평통의 활약상을 강조했다.

이어 보스턴 협의회의 사업계획 및 협의의 운영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이석현 수석부회장의 강연이 이어졌다.



20일 더블트리호텔바이힐트에서 열린 20기 평통 출범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



20기 한선우 회장(사진 왼쪽부터 세번째)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이석현 수석부회장(왼쪽 두번째)



축사를 전달하고 있는 유기준 총영사



Beef Soup for the Soul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SUMMER SPECIAL COLD NOODLES

물냉면 14.95
Mul-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in cold beef broth

비빔냉면 14.95
Bibim-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with spicy sauce on top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턴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미셸우, 에사비 조지 여론조사서 32% 앞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조기 우편투표가 시작되는 10월 넷째주 미셸 우 시의원은 에사비 조지 시의원에 비해 무려 32%를 앞서며 보스톤 시장 선거에서 승세를 확고히 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62%가 미셸 우 후보를 30%가 에사비 조지 후보를 지지했으며 7%가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유권자들은 또 유권자들은 렌트 컨트롤과 같은 미셸 우 후보의 정책에 지지의견을 보내 미셸 우 후보가 앞서가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첫번째 TV토론을 벌인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다.

보스톤글로벌보는 TV토론에서 에사비 조지 후보가 의외로 선전했으며 그로 인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19일 벌어진 2차 TV토론에서도 더욱 더 공격적으로 나온 에사비 조지 후보가 더 많은 점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11월 2일까지 2주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미셸 우 후보를 따라잡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서퓸대학 정치연구센터의 데이비드 팰리오로고 스 소장은 “미셸 우 후보가 11월 선



미셸 우 시의원(좌)과 에사비 조지 시의원

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요 유권자층을 공고히 해가고 있음을 분명해 보인다” 고 밝혔다.

특히 지난 여론조사에 이어 미셸 우 후보는 백인, 흑인, 히스패닉 그리고 아시아 유권자들 모두에게서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다. 에사비 조지 후보는 백인 유권자 층에서 38%로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나 미셸 우 후보는 61%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

다만 흑인 유권자의 15%, 히스패닉 유권자의 21%는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미셸

우 후보는 무려 71%에 달하는 유권자들에게서 긍정평가를 받아 “최상” 의 호감도를 보였다. 반면 에사비 조지는 49%의 호감도를 기록했으며 29%의 비호감도 동시에 받았다. 반면 단 18%만 미셸 우 후보에 대해 비호감을 표시했다.

미셸 우의 호감도는 단 57%의 호감도에 그친 마틴 월시 시장을 넘어섰다. 지난 6월에는 월시 전 시장이 68, 미셸 우 후보가 62%였었다.

결국 엄청난 이변이나 큰 실수가 벌어지지 않는 한 다음 보스톤 시장은 미셸 우로 기록될 전망이다.

hsb@bostonkorea.com



렉싱턴 미국내 최고 작은 타운 5위

월렛허브 조사, 매사추세츠 8개 타운 20위권 안에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타운 중 하나인 렉싱턴이 미국내 최고 소규모 시티 4위에 선정됐다.

개인재정 웹사이트 월렛허브가 19일 발표한 미국내 최고 소규모 시티 순위에서 렉싱턴은 교육과 건강 측면에서 1위로 꼽혔다. 그러나 안전도 면에서는 전체 7위였고 경제 건강지수 면에서는 37위로 약간 뒤쳐졌다. 다만 평균 크레딧점수와 인구 성장에 있어서는 선두권을 형성했다.

렉싱턴 외에도 레딩이 5위, 밀튼이 8위, 멜로즈가 9위 알링턴이

14위 뉴턴과 니담이 16위 동울을 기록했다. 그러나 상당수 좋은 타운들이 제외돼 있어 조사 기준에 대해 의아함을 표하게 만들고 있다.

월렛허브는 미국내 2만5천에서 10만 이내의 1300여 도시의 생활지수를 분석해 순위를 결정했으며 주택값, 학군, 인구당 레스토랑 수 등이 주요 분석 기준이었다.

이에 따르면 워싱턴주의 새마미시(Sammamish, WA)가 1위, 인디애나의 카멜(Carmel), 테네시의 브렌트우드(Brentwood)가 최고 3개 타운을 차지했다.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산 자가진단 코로나 테스트 키트 판매 합니다. 개당 \$50”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5세이상 어린이 11월초부터 백신 접종 시작할 듯

향후 2주내 CDC 자문위 백신 승인 여부 결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5세에서 11세 사이의 아동들도 곧 소아과 또는 지역 약국체인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백악관은 20일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 접종을 곧 관계 기관이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 CDC는 관계 전문가들과 다음 2주동안 화이자 백신의 안전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CDC의 자문위는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이 같은 회의를 갖게 될 예정이며 이후 몇 시간 내 대부분의 백신과 어린이용 접종 주사기는 미국내 전역으로 배포된다.

백악관 제프 자이언트 코로나 조정은 20일 “우리는 5-11세 아동의 백신이 편리하고 쉽게 접종할 수 있는 운영 계획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어린 학생들 백신접종은 백신을 구하기 어려웠던 지난 10개월전의 백신 배포와 완전히 다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내에는 2천8백만 5세-11세 아동에게 접종을 완료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백신이 확보되어 있다고 백악관은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동안 백악관은 백신이 승인되면 바로 광범위하게 배포할 수 있는 준비를 수개월간 해왔다.

현재 2만5천 소아과 병원들은 백신 접종을 신청했으며 수십만의 대형약국체인들도 준비를 마쳤다. 또한 학교와 커뮤니티 클리닉들도 연방재난관리청의 지원을 받아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백악관은 이와 동시에 학부모와 어린이들에게 백신의 안정성과 접종의 용이성을 설명하는 캠페인을 대폭 확대, 강화할 방침이다. 백악관은 성인들 접종에서 이미 큰 문제를 일으켰던 점을 감안해, 학교 교사, 의사, 그리고 각 커뮤니티 리더들의 백신 접종 권유가 핵심적이라고 밝혔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에 비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이 적지만 여전히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백신의 접종은 아동 사이에서의 코로나바이러스 전파와 델타 바이러스 감염을 대폭 낮출 수 있다고 백악관은 강조했다.

백악관은 향후 11월초 첫번째 백신을 접종하고 크리스마스 시기까지는 모두가 2차 접종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6천5백만 화이자 어린이용 백신을 이미 구입해 모든 해당 연령 어린이들의 백신접종 준비를 마쳤다. 현재 미 12세 이상의 국민 중 66%가 최소 한차례 백신을 접종했으며 1억9천만명이 2차 접종을 마쳤다.

hsb@bostonkorea.com

MA주 불법 횡단 최대 \$200부과 법안 상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거리를 무단으로 건너는 사람들의 범칙금을 강화하는 법(H 3470)이 매사추세츠 하원 교통위에 상정됐다.

상정한 이 법안은 불법횡단 초범에 대해서는 \$25, 1년내 두번째 불법횡단은 \$50, 그리고 세번째 횡단에 대해서는 \$100로 범칙금을 올리자는 법안이다. 그렇지만 만약 불법횡단시 헤드폰을 끼고 있는 경우 범칙금이 2배가 된다.

현행법에서는 불법횡단에 세번째 위반시까지 \$1, 그리고 4번째부터는 \$2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워크보스톤의 브렌든 커니 부디렉터는 이 법안이 “결코 안전을 높이지 않고 비현실적”이라고 비난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Publisher & C.E.O
정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럼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류업체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정관장

함께 이겨요! 함께 지켜요!

지금은 모두가 힘내 우리를 지켜야 할 시간
보스톤 정관장이 함께 합니다!

면역기능 강화

예방적 관리를 위한 면역 기능 강화

신진대사 강화

자연스럽게 체온을 활성화하여 신체 기능과 체력 전환이 순조롭게 작동

피로 회복

정신적 육체적 안정성을 유지하여, 스트레스 내성을 높이고 건강 기능의 균형 유지

기초 체력 향상

지구력과 인내력을 조화시켜 기초 체력의 기준을 향상

혈류 개선 효과

건강한 생체 리듬을 활성화하면서 신체 각 부위에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위한 혈류 개선



홍삼정 240g 1개 구매시
정관장 홍삼정 30g 증정

면역력으로 이겨냅니다!
정관장 추가 증정 및
할인 프로모션
행사기간: ~8월 16일까지



에브리타임 2개 구입시
10포 증정



신제품
홍삼라떼
15% 할인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FedEx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마음대로
골라본다
\$24.99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볼로 변경)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99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YOUTUBE

\$34.99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영화/성인, YOUTUBE

\$39.99

*전상품 1년 약정

총 13개
Live방송중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NOW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 M11 |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이번 주말 보스톤 추위 및 첫서리 가능성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올 가을 보스톤은 예년에 비해 따뜻한 기온이 지속됐다. 그러나 이번 주말은 지난 주말처럼 또 한차례의 추운 날씨가 찾아올 것이라고 아큐웨더는 예측했다. 이번 주말에는 지난 주말보다 더 추울 뿐만 아니라 보스톤 인근 상당수의 지역에서 첫 서리를 내린다는 예보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눈발이 날릴 수도 있다. 이 찬 공기는 이미 이번주 중반

력을 형성해 동북부로 이동 중이다. 이 스톤은 와이오밍 지역에 상당수 인지에서 윈프트에 달하는 폭설을 뿌렸으며 이번 주 금요일께 동쪽으로 밀려 오게 된다. 이 같은 찬공기가 오하이오, 웨스트버지니아, 웨스트 펜실베이니아 및 뉴욕 등에서 따뜻한 공기와 만나면서 지역에 따라 폭우와 천둥번개가 들어칠 예정이다. 이 차가운 공기는 주말 동북부지역에 도달해 내주 초까지 머물 예정

이다. 낮 기온은 지금보다 15-30도까지 떨어지게 된다. 북부산간 지역에서는 토요일 밤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면서 처음에는 비로 내리다가 눈비 또는 습설로 바뀌어 내리게 된다. 추위는 일요일에서 월요일까지 이어지며 낮 최고 기온이 50도 초중반에 머물게 된다. 특히 밤기온은 낮아져 30도대를 기록하게 될 전망이다. hsb@bostonkorea.com



월마트, 블랙 프라이데이 11월 한달동안 회원들에게 우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월마트는 올해 11월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지금까지와 다르게 회원들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회원 가입 확대를 노리는 월마트는 블랙 프라이데이 회원들에게 한달동안 일반고객들에 비해 먼저 구입할 수 있는 접근권을 제공한다. 월마트는 18일 월마트 플러스 회원들은 11월 한달동안 다른 고객들에 비해 4시간 먼저 세일제품을 쇼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제적인 공급망 붕괴 사태로 인해 할러데이 시즌에 텅빈 선반을 접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플러스 회원 우대

에 관심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플러스회원은 1년 \$99이며 월 12.95이다. 회원에게는 개스 할인, 대기없는 체크아웃, 무료 식료품 배달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월마트의 이 같은 발표는 타겟이 지난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딜데이”를 통해 조기 쇼핑객들을 끌어들이기 이후 나온 대책이다. 아마존 또한 지난 10월 4일 “에픽딜스”라는 이름으로 할러데이 시즌 쇼핑을 시작했으며 시즌 전체동안 매일 할인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개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최광철 미주 부의장 "종전선언, 곧 이뤄질 가능성 크다"

궁지 몰린 민주당 정부 한반도 문제해결로 돌파구 한인들, 한반도의 평화가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 알려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대내외 난제로 돌파구를 찾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해와 한국 정부의 대북대화노력이 맞물려 조만간 북한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최광철 평통 미주 부의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질문에 “아주 희망적이다. 몇 달 안에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20일 보스톤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평통 보스턴협의회 20기 출범식을 앞두고 더블트리바이힐튼 호텔에서 개최된 인터뷰에서 최 부의장은 현재 약 40%대로 떨어져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을 지적하며 “한반도 문제해결 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성과 기회로 이어질 것”이라며 중간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정부에서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고 예측했다.

연합뉴스도 19일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 종전선언이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데 양국이 공감”하고 있으며 “한미 당국이 종전선언 채택에 대비해 일정 정도의 문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의회에서도 한반도 평화에 대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5월 20일 미의회에 제출된 한반도 평화 법안(HR 3446)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북한여행금

지명령 해제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았다.

최 부의장은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현재까지 27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과거 종전결의안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반겼다.

최 부의장은 “(한반도평화를) 확실하게 담보하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가 가져올 수 있는 미국의 이익과 미중 패권경쟁의 시대에 남북미 경제협력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유권자로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며 미주 평통위원 그리고 한인들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의장은 LA에 본부를 둔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로 지난 9월 20기 민주평통미주지역부 의장으로 임명됐다.

공공외교의 전문가이기도 한 최 부의장은 “한반도의 평화가 미국의 헌법가치에도 부합하고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하다며 정당 유권자, 모범시민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미국 정계에 공공외교를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최광철 민주평통 미주 부의장 인터뷰

▶평통 미주 부의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소개해달라.

미주 부의장 역할이 생긴 것은 12기부터다. 제가 6번째다. 20기 전 세계에 45개 협의회가 있는데 미주에

20개가 있다. 캐나다 2 미국 15 중남미 3개 있는데 그 협의회를 총괄, 미국에서 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에 관한 얘기를 통합해 내고 방향을 제시해 내는 그런 자리다. 민주평통자문회의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조직이다. 부의장이 광역단체마다 있고, 미주는 가장 큰 해외 협의체라 할 수 있다.

▶20기 평통에서 강조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평통(의 역할)은 여론수렴, 자문 수준으로 동포들을 계몽하고 평화 통일을 의지 확산하는 약간 수동적이었다. 20기 평통(의 역할)은 모아진 여론의 의지들을 확산, 실천하는 것이다. 그것이 평화공공외교라 지칭한다. 이는 외교외연의 확대. 외교주체와 대상의 확대인데 동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동포들이 미국내에서 유권자의 자리, 당당한 모범 시민으로서 한반도의 평화가 미국의 헌법가치에도 부합하고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난후 미국의 대북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다이내믹한 움직임은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희망적으로 보인다. 몇 달 안에 바이든 행정부도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4월말에 대북 정책 리뷰를 마쳤음에도 구체적인 정책 실현을 보여주지 않아 답답했었다.



20일 보스톤소재 더블트리바이힐튼호텔에서 출범식 직전 인터뷰에서 최광철 평통 미주 부의장은 종전선언 가능성을 낙관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북미대화의 신속한 재개다. 바이든은 지지율이 아주 떨어져 있다. 내년 중간선거 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에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한반도(분단)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굉장히 큰 외교 성과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한반도 평화를) 확실하게 담보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가 가져올 수 있는 미국의 이익, 미중 패권의 경쟁의 시대 남북미 경제협력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유권자로서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

▶과거 보도로 보면 미 의회를 상대로 종전선언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셨는데 올해도 다시 추진하고

계신지?
116기(미의회) 회기에 HR 152 종전선언 결의안에 2년 52명의 의원이 서명했지만 외교위원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기대도 많았고 실망도 컸다.

117기에서는 한반도 평화법안(HR 3446)이 브래드 셔먼 의원에 의해 5월 20일 날 발의 됐으며 27명이 서명했다. 한국적 종전 결의안보다 훨씬 빠른 속도다.

이 법안은 종전선언과 평화조약을 맺는 것을 180일 안에 요구, 비핵화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인권의 문제 등 논의하는 북미연락 사무소 설치, 북한여행금지 행정명령 해제 등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북한의 의도는 어떤 ▶▶7면으로 계속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한미, 종전선언 점점 찾나...잇단 접촉에 문안 협의까지 진행

▶▶6면에 이어서
것으로 풀이하고 있는가?

개인적으로 북한 국내용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군관련 보수 파들은 대화를 하더라도 항상 대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전 선언 등을 김정은 의원장 혼자 추진할 수는 없을 것이다.

평화의 문제는 진보, 보수만의 문제가 아니다. 분단의 극복은 미래 한국의 성장동력, 북한을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한국, 미국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미국과 한국을 모두 잘되게 하는 다리 역할이 디아스포라 공공외교 즉 이민자의 책임이다.

▶공공외교의 전문가 이신데 민주 한인사회에서의 공공외교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

공공외교는 미국이 원조다. 처음엔 프로파간다 입장이 강했지만 나라 이미지를 제고해서 상품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바뀌었다. 한국은 2010년 처음으로 공공외교의 원년을 선포했다. 공공외교는 재외동포의 인적교류, 케이팝 등의 문화공공외교, 한글, 한국학 등 지식 공공외교, 그리고 정책 공공외교로 나뉜다. 정책 공공외교를 정부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탈피해서 동포들이 함께 해야 한다. 평화의 중요성 가치에 중요성을 깨닫고 한반도 평화가 가져오는 가치와 이익 세계 평화에 끼칠 영향을 알려야 한다

공공외교는 유대인 APAC가 가장 큰 잘했다. 250만 미국 유대인들이 미국의 모든 정책이 유대인들 편에 서게 만들었다. 그래서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을 만들었다.

editor@bostonkorea.com

한미 • 한미일 조율 뒤 성김 또 방한... "美 내부 논의결과 들고 협의" 美 공식 언급 없지만 한미간 문안 협의... "美, 종전선언 영향 검토"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한국전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조만간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물론 미국 정부가 아직은 함구하고 있어 종전선언에 대한 스탠스를 가능하긴 어렵지만, 최근 잦은 한미간 행보를 볼 때 입장 표명이 머지않았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종합하면 한미 양국 간 점점 찾기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기에 충분하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3국 북핵대표 협의 직후 정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종전선언은)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계기로 상당히 유용하다는 한미 간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잇단 미사일 발사로 한미를 상대로 일종의 탐색전을 벌이고 있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 종전선언이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데 양국이 공감한다는 의미다.

이는 일주일 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방미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협의한 직후 정부 당국자가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당시 이 당국자는 "종전선언에 대한 우리 구상을 상세히 설명했고 미국의 이해가 깊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 당국이 종전선언 채택에 대비해 일정 정도의 문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문안까지 협의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 정부도 종전선언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본격적인 조율을 거쳐 한미가 종전선언에 대한 공동문안을 만들어 북한과 대화하게 돼 북한의 동의를 얻어낸다면 종전선언 채택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상황에 따라 한반도 기류의 급변도 접착될 여지가 없지 않다.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와의 종전선언 논의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전날과 이날 한미, 한미일 간에 연속 협의를 가진 데 이어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번 주 또다시 방한해 종전선언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한미 북핵대표는 최근 50일 동안 한국, 미국, 인도네시아를 오가며 무려 5차례나 대면 협의를 했다. 그사이 한미 안보실장과 정보수장 간 논의도 이어졌다.

정부 당국자는 "김 대표의 우리 측과의 여러 협의 내용과 종전선언 등에 대한 미 정부 내부 논의 결과를 갖고 협의를 이어가려고 서울에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머지않아 결실이 가시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 기대를 부풀리는 대목이지만 선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미국 정부가 종전선언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공감대가 있다'는 한국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왼쪽)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운데),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 한미일 3국 북핵대표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3차 협의를 하면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당국자들의 전언에도 미국은 아직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최근 한미 안보실장 협의는 물론 이날 한미일 북핵대표 간 협의 직후에 내놓은 백악관과 국무부의 성명에는 종전선언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다. 이를 굳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미국의 고민이 그만큼 깊다는 방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은 종전선언이 실제 이뤄질 경우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종전선언은 대북 대화를 시작하는 입구로서 장점이 있는 조치"라면서도 "미국은 이를 채택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검토를 상당히 깊이 있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이 주한미군의 지위나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에 대한 국내적 논란과 마찬가지로 미 정부가 이를 중심으로 들여다보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촉매가 돼야 할 종전선언이 자칫 북한의 주한미군 및 전략무기 철수 등의 주장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는 자체 법률가들을 상당수 투입해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고민 지점은 비핵화 대화를 견인할 종전선언 자체라기보다는 미처 예상치 못한 후폭풍에 대한 우려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북한은 종전선언에 앞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내걸고 있고, 대표적인 게 대북 제재 완화가 거론된다.

하지만 미국은 대화에 앞선 선결 조건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신뢰 구축 조치로서의 종전선언 자체가 대북 적대시 정책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어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태도를 견인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정부 당국자는 종전선언과 함께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기 위한 양대 축인 한미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실무 협의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북한의 동의만 있으면 언제든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honeybee@yna.co.kr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전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 에서 민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전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전 미국 육군 심판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에게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로, 현 점수 및 정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Michelle Han CPA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애머스트칼리지 동문자녀 우대정책 폐지키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주 작은 한 대학 애머스트칼리지가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사학 명문 애머스트 칼리지는 내년부터 대학 졸업생 동문자녀들을 우대하는 레거시 우대(legacy preferences) 정책을 폐지키로 했다.

이는 입학시 동문자녀들을 우대하는 정책에 대한 미국내 각종 반대 움직임에 도화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추후 다른 대학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총 지원자들의 11%만 좁은 문을 통과하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점수를 보탬 수 있는 우대정책은 불평등의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이 우대정책은 하버드를 비롯한 주요 명문대학들이 채택하고 있다.

애머스트칼리지 베디 마틴 총장은 레거시 우대가 자신들의 출신과 관계없이 재능있는 학생들의 입학을 장려하는 명문대학의 목표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다고 변경 이유를 밝혔다.

이번 정책변화로 애머스트는 지금은 적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는 대학의 대열에 참여하게 됐다. 지난해 존스홉킨스가 이 정책의 폐지를 발표했고 콜로라도주는 공립대학에서 이 같은 조치를 금지시켰다. MIT를 비롯한 일부 명문학교들은 아예 이 같은 제도가 없었다.

지난달 마틴 총장은 자신의 퇴임을 발표하고 동시에 동문우대정책까지 폐지함으로써 차기 총장이 이 같은 문제를 다시 고민하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애머스트는 1,800명의 학생수를 감안했을 때 2015년 미국내에서 6번째로 큰 기부금을 보유한 대학이었으며 이후 20% 가량 증가해 현재는 26억 달러에 달한다.

레거시 정책은 그동안 동문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방편으로 옹호됐으며 이는 대를 이은 큰 기부로 이어진다는 점이 옹호의 근거였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이 불평등을 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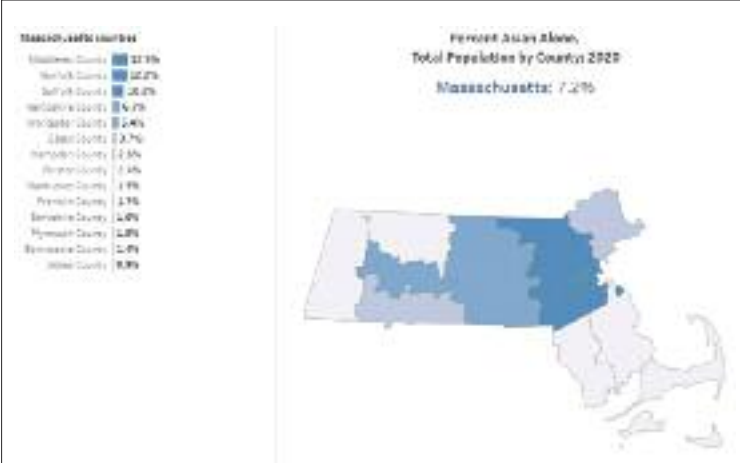
는 논란에 시달려 왔다.

리처드 칼렌버그 평등교육을 목표로 하는 센추리재단의 수석펠로우는 “이는 도적으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다” 라고 꼬집었다.

2010년 칼렌버그가 편집하고 3명의 경제학자가 저술한 책에 따르면 “레거시 정책과 명문대 동문들의 기부금액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확연한 증거가 없다” 는 것이다.

“대학 연구진들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머리를 짜내고 있는 반면 이들의 대학은 이미 혜택을 받은 그룹에게 추가혜택을 퍼주고 있다” 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또 “혜택자들은 압도적으로 백인들이며 명문대 졸업생의 부유한 자녀들이므로 결코 상식적이지 않다” 고 덧붙였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아시안 흑인 인구 넘어섰다

▶▶ 1면에 이어서

아시안들은 매사추세츠 95번 도로 및 495번 도로선상 사이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년간 아시안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낸터킷 카운티로 123.7%가 늘었다. 그다음은 노퍽 카운티 53.1%, 미들섹스 카운티 50.4%, 햄프셔 카운티 50.4% 순이었다.

특히 미들섹스 카운티에서 아시안은 지난 10년간 70,519명이 늘어 10년간 줄어든 89,966(7.5%)명의 백인의 수를 거의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인은 1,112,445명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안은 두번째로 많은 인구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들섹스 카운티는 미국내에서 아시안 인구비중이 높은 카운티 40위에 랭크됐다. 가장 아시안 비중이 높은 카운티는 호놀룰루(하와이), 산타 클라라 카운티(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카운티(캘리포니아) 순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매사추세츠 서부인 햄프셔 카운티에도 꾸준히

아시안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50.3%가 증가해 총 10,796명이 거주한다고 답했으며 이로써 카운티 전체 인구의 6.7%를 차지했다.

미국내 전체적으로 아시안 인구는 2010년과 2020년 사이 35.5% 증가했다. 2020년에 아시아인으로 확인된 수는 전체 응답자의 6%수준인 약 1,990,000명였다. 2010년 아시안 인구는 전체 4.8%인 1,470,000명이였다.

인구조사국은 인종별 분석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좀더 국가별로 세분화된 정보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니콜라스 존스(Nicholas Jones) 인구조사국 인구 부문 인종 및 민족 연구와 홍보담당 수석 고문은 "2020년 인구조사를 통해 앞으로 발표할 자료가 더 많다"면서 "상세 인구 및 주택 특성 파일(Detailed DHC)에는 중국계, 한국계, 태국계, 베트남계, 인도계 등과 같은 세부 아시안 그룹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라고 밝혔다.

인구조사국은 구체적인 발표 시기는 말하지 않았다.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형제 떡집

모든 종류 떡 주문 가능!


GRAND RE-OPEN
축 재개업

영업 시간
딜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요가송의 5분요가

유튜브 검색창에  요가 읽어주는 여자 hayeon

10일 완성! 출렁거리는 팔을 날씬하게 만드는 상체운동 루틴

출렁이는 팔뚝(안녕살)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아니면 특별히 많이 먹은 것도 없는데 탄력없이 축 쳐진 아랫배가 늘 신경쓰이신가요?

온전히 체중감량이 목적이라면 먹는 것을 조절해도 어느정도 효과는 있지만 복부탄력을 비롯해 팔과 등, 겨살등 지방이 쉽게 붙는 부위는 근육운동이 함께 병행되어야 제대로 슬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상체운동은 힘들다는 편견으로 주저하고 계시는 여성분들에게 오늘 상체 루틴, 적극 추천해드려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요가 읽어주는 여자 hayeon' 을 검색하신 후, 최근 영상에서 날씬한 팔, 잘록한 허리 만들기 편을 찾아 꼭 따라 해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림설정도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 배울 자세는 단계별 사이드 플랭크 자세입니다.

첫번째 단계로 몸의 정렬 맞추기부터 시작합니다.

STEP 1. 오른 엉덩이를 바닥에 댄 자세에서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어깨를 팔꿈치 위에 위치하게 합니다.

STEP 2. 어깨와 귀가 멀게 해 목의 긴장을 최대한 풀고 엉덩이와 무릎을 서로 같은 선상에 있도록 맞춰주세요.



두번째는 무릎을 바닥에 둔 엘보 플랭크 자세에 도전해봅니다.

STEP 1. 배를 등쪽으로 살짝 끌어당기는 힘으로 엉덩이를 바닥에서 떼어봅니다.

STEP 2. 어깨가 아프지 않게 버티려면 어깨에서 귀를 멀리 보내고 복부를 수축하며 버팁니다



STEP 3. 왼손을 하늘 위로 뻗었다가 영상을 보며 트위스트까지 진행해주세요

세번째는 풀 사이드 플랭크 자세로 두다리를 동시에 뻗어봅니다.

STEP 1. 두번째 단계에서 조금 더 힘이 생기면 두다리를 다 뻗어봅니다.

STEP 2. 두다리를 서로 겹쳐도 되고 한발을 앞으로 다른 발은 뒤로 한 뒤 중심을 잡아보세요.

STEP 3. 몸의 중심이 많이 흔들리거나 어깨가 아프다면 다시 2단계로 돌아가 좀더 연습해 보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같은 운동을 1주일 넘게 매일 지속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거예요. 저도 예전에 한 달 가까이 큰팔과 코어챌린지 하며, 어떤날은

정말 건너뛰고 싶더라고요. 자신의 근력과 에너지에 맞게 같은 운동이라도 매일 조금씩 변형을 가져가는 것도 추천해드려요. 영상을 참고하시되, 힘들 때는 중간중간 무릎을 내리거나 잠시 휴식하고 다시 시작해봐도 좋구요. 본인 스스로에게 맞는 강도를 찾아 조절해가며 우리 딱 10일만 상체 운동 함께 해봐요! 해보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물어봐 주시구요.

유튜브도 좋지만 라이브 온라인 수업으로 선생님과 소통하며 직접 자세 교정도 받고 싶다면?

하연샘과 함께 하는 매주 라이브 ZOOM 요가 & 필라테스

라이브 ZOOM 무료 수업 체험
현재 매주 온라인 라이브 ZOOM요가&필라테스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건강과 아름다움, 자신감과 긍정의 힘을 기를 수 있는 기회이니 1회 무료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카톡아이디 yogafulnesslife 로 본인 이메일 주소와 함께 신청해주세요.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채널 바로가기 <https://bit.ly/3w9ks4u>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ness.life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mw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COMPASS

Our mission is to help everyone find their place in the world.



Why Compass 왜 컴파스인가?

- 부동산 서비스와 정보기술(IT)을 접목한 프롭테크(PropTech) 기업
부동산(property) + 기술(technology) = 컴파스 (Compass)
- 부동산 구매자와 에이전트들을 대상으로 상세한 매물 검색과 개인화된 매물추천, 부동산 거래 관련 상호 커뮤니케이션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통합 부동산 플랫폼 제공
-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5000억원 투자한 회사
- 저스틴 월슨 비전펀드 선임 투자전문가 “컴파스는 주택 구매자와 중개업자를 연결해주는 차별화된 기술 플랫폼을 갖추고 있어 이 분야에서 입지가 탄탄한 기업”
- 2019년 판매량 기준 보스턴 및 케임브리지 1위 (Source: MLS)
- 750+ Agents in Greater Boston
- Operates in 20 U.S. markets including New York, Philadelphia, Boston, LA, Chicago, Washington D.C., Dallas, etc.

Agent Introduction 에이전트 소개

안녕하세요, 제이슨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성원과 격려로 미국 최고의 부동산 회사인 컴파스와 함께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부동산 토털 서비스를 가지고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컴파스에서 제공하는 고객 맞춤형 마케팅 전략과 최고의 정보기술과 함께, 헌신 (dedication), 믿음 (Trust), 결단력 (Determination) 을 기반으로 고객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거래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ompass 와 함께 차원이 다른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슨 드림



Jason Jeon 제이슨 전
Realtor®
jason.jeon@compass.com
617.642.5670

compass.com



Compass Services

Compass Concierge 컴파스 컨시어지

컴파스 컨시어지는 셀러에게 무이자로 주택 개선 비용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페인트, 바닥, 스테이징 등 집 리모델링에 관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의 가치를 최대한 올려 더 빠르고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Compass Coming Soon 컴파스커밍순

compass.com 에 부동산을 시장에 출시 될 예정임을 사전에 광고하여, 사이트를 검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과 수요를 창출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Compass Bridge Loan Services 컴파스 브릿지론

컴파스 브릿지론은 최대 6개월의 브릿지대출의 대출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업계를 선도하는 브릿지 대출 기관인 Freedom Mortgage, Better.com 의 경쟁력있는 이자율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Compass is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abides by Equal Housing Opportunity laws. All material presented herein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Information is compiled from sources deemed reliable but is subject to errors, omissions, changes in price, condition, sale, or withdrawal without notice. No statement is made as to the accuracy of any description. All measurements and square footages are approximate. This is not intended to solicit property already listed. Nothing herein shall be construed as legal, accounting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outside the realm of real estate brokerage.



미들턴의 한 주택 공사 현장에 쌓인 목재

미 9월 주택착공 1.6% ↓ ...물가상승 · 공급망병목에 주춤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원자재 등 물가상승과 인력난, 공급망 병목 현상 속에 미국의 신규 주택 건설 붐이 가라앉고 있다.

미 상무부는 9월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보다 1.6% 감소한 156만 건(연율)으로 집계됐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62만 건을 밑돌았다.

향후 주택시장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신규주택 허가 건수도 159만 건(연율)으로 전월보다 7.7% 급감했다. 지난 2월 이후 최대폭 감소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피해 교외의 넓은 집으로 이사하려는 수요 급증과 역대급으로 낮아진 대출 금리가 맞물려 주택 착공이 늘어났으나, 최근 비용 문제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 자재 비용이 급등하고 공급망 문제로 배송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노동력이 부족해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건설 중이지만 아직 완공되지 못한 주택 수

는 197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미 최대 부동산 정보 업체 질로우는 인력난 등을 이유로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주택 플리핑(낡은 집을 사들여 리모델링 후 되팔기) 사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2분기에만 주택 3천800채 이상을 매수한 질로우는 이미 사들인 주택을 처리하는 데에도 일손이 모자라 추가 매수 계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9월 그레이터 보스톤 주택가격 상승 멈췄다

▶▶1면에 이어서

가을 매매 시기에 맞춰 매물이 점차 늘어서 이 같은 현상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전문가들은 점차 주택시장은 바이어스마켓으로 전환되어가고 있으며 최소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조건에서 매매를 진행할 수 있

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고 현상을 풀이했다.

이에 따라 일부 좋은 조건의 집이 아닌 이상 얼마 전과 같은 비딩 위는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hsb@bostonkorea.com

아마존, 연말 연휴시즌 대비 계절노동자 15만명 채용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최대 성수기인 연말 연휴 쇼핑시즌을 대비해 계절노동자 15만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1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의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은 이번 계절 노동자 채용은 연말 성수기를 대비하고 정규직 직원들에게 근무의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발표한 인력 확충계획과는 별도로 설명했다.

아마존은 지난달 창고와 운송망에서 일할 12만5천명과 사무직

4만명 등 총 16만5천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아마존 전체 직원은 130만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온라인 쇼핑이 많이 늘어난 지난해에만 50만명을 신규 채용했다.

앞서 대형 유통체인인 월마트도 지난달 연말 성수기를 대비해 15만명을 신규 채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타깃도 지난달 매장에서 일할 계절노동자 10만명을 포함한 13만명 신규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kp@yna.co.kr



마음대로 골라본다

\$24⁹⁹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⁹⁹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YOUTUBE

\$34⁹⁹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영화/성인, YOUTUBE

\$39⁹⁹

티보 대리점 모집

각 딜러는 LA 본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초기 자본 없이 창업이 가능합니다.
주요 업무: 신규 서비스 설치 및 기존 고객관리
연락처: 617.949.1766

총 13개 Live방송중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NOW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지난해 한국의 개인투자자 수는 914만명으로 전년 대비 49% 급증했다.

외신, 유튜브로 주식공부 한국 개인 투자자 조명

지난해 주식 거래 3분의 2가 개인투자자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한국의 상당수 개인투자자들이 유튜브로 주식 공부를 하며 투자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인 수백만명이 최근 1년간 '삼프로TV'나 '슈가월드' 등과 같은 유튜브 채널에서 정보를 얻으며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다.

개인투자자들이 유튜브에서 투자 전략을 얻는 것은 많은 나라에서 일상과 같은 것이 됐으나 한국은 그 정도가 다르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일단 한국의 개인투자자들이 지난해 급격하게 증가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의 개인투자자 수는 914만명으로 전년 대비 49% 급증했다. 지난해 전국민의 18%가 주식투자를 한 셈이다.

한국의 많은 젊은이가 집값이 너무 올라 주택시장에 환멸을 느끼게 된 점이 많은 개인투자자의 주식 투자 참여 배경이 됐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증시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졌으나 한국의 이런 반응은 '엄청난(huge)'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개인투자자들은 지난해 400억달러(약 47조원)어치를 순매수

해 코스피 지수가 연간 31% 상승하는데 일조했다.

지난해 주식 거래의 3분의 2를 이들 개인투자자가 차지했고, 연말 기준 전체 시가총액에서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8%에 달했다.

이는 일본의 경우 개인투자자 비중이 주식 거래에서 22.7%, 연말 기준 시가총액에서 16.8%에 그친 것과 비교된다.

통신은 유튜브 채널의 장점으로 시청자의 높은 참여도를 꼽았다. 시청자들이 영상을 시청하면서 실시간으로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전문가들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유튜브 채널들은 현안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관련 콘텐츠를 제

작·송출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유튜브 채널들이 한국에서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무료인 덕을 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리포트가 공짜로 배포되기에 개

인투자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조언을 구할 필요가 없고 또 애널리스트들이 유튜브 채널에 더 쉽게 출연할 수 있게 됐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pseudojm@yna.co.kr

페이스북, 내부 감독위원회에도 질타당해... "실상 그대로 안밝혀"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현 특파원 = 내부 고발자의 폭로로 비판에 휩싸인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자체 감독위원회로부터도 실상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질타당했다.

페이스북 감독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 회사가 많은 저명 이용자의 게시물에 대해 어떻게 콘텐츠 규정을 면제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앞서 드러난 내부 고발자의 폭로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은밀히 '크로스체크'란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정치인, 언론인 등 명사 수백만명의 계정은 '화이트리스트'로 분류해 일반인과 다른 잣대로 이들의 콘텐츠를 제재·관리했다.

이들은 규정 위반 콘텐츠를 올려도 바로 삭제되지 않거나 아예 콘텐츠 규정을 면제받았다는 것이다.

감독위원회는 올봄 페이스북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정지하기로 한 조치를 감독위원회에 회부해 결정해달라고 했을 때 크로스체크란 프로

그램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독위원회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문의했지만 제한적이고 불충분한 정보만 밝혔다는 것이다.

감독위원회는 "더 높은 투명성에 대한 요청에 페이스북이 것처럼 모호하고 허술한 답변을 내놨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감독위원회는 페이스북으로부터 크로스체크 관행과 관련한 문건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시민단체 등과 공청회를 열고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들은 권고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 감독위원회는 페이스북이 2016년 미국 대선 때 러시아의 개입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난 뒤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가 제안해 설치한 일종의 '소셜미디어 대법원'이다.

페이스북의 콘텐츠 삭제 결정 등을 검토해 부당하면 이를 무효화하는 등의 독립적 결정을 내리거나 콘텐츠 감시 지침을 마련한다.

감독위원회는 인권·표현의 자유 등 분야의 교수·법률가·활동가 등 외부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sisyphe@yna.co.kr

신신마트 당일배송

배달 서비스

EXPRESS DELIVERY

각종 고기와 반찬, 쌀, 라면, 야채, 과자 뿐만 아니라 신선한 생선회(Mr. Sushi) 등을 12시 이전에 주문하시면 안전하게 당일 배송해 드립니다.

\$100불 이상 / 배송비 10불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은 Free Delivery 해드립니다.

가격과 품질에 정직합니다

정성들여 만든 신신 스페셜

얼큰한 해물 짬뽕국물 (\$7.99)

순두부 (\$7.99)

육개장 (\$9.99)

싱싱한 홈메이드 신신만두 (\$25.00) (고기만두, 김치만두)

싱싱한 스시, 사시미 배달

즉석 김밥, 홈메이드 만두 등 당일 배송 가능

ALL 유기농 늘푸른 농장

한국포도 \$19.99/pack, \$36.00/box

메주콩, 검정콩 \$29.99/5LB

배즙, 포도즙, 대추즙 \$29.99/25packs

마른대추 \$29.99/1bag

고춧가루 \$69.99/3.8LB



LFP 배터리는 삼원계 배터리보다 주행거리가 짧은 단점이 있지만, 니켈·코발트 등 상대적으로 고가인 금속이 필요하지 않아 비용이 저렴하고 열 안정성 면에서는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 중국처럼 LFP배터리로 바꾼다...K배터리 '긴장'

국내 '빅3', 니켈·코발트·망간삼원계 배터리에 편중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전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주력 차량 배터리를 CATL 등 중국 업체들이 주로 생산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로 바꾸고 있다고 미 CNBC 방송 등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내 배터리 '빅3'가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 등 삼원계 배터리에 거의 '올인'한 상황에서 전기차 업체를 선도하는 테슬라의 이번 결정이 국내 배터리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테슬라는 이날 공개한 3분기 투자 설명자료에서 표준 범위의 주행거

리를 가진 모델에 사용하는 배터리를 기존 삼원계 배터리에서 LFP 배터리로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테슬라는 그러나 장거리 주행 모델에는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삼원계 배터리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테슬라는 이미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CATL이 생산한 LFP 배터리를 장착한 모델3 세단과 모델Y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만들어 중국과 아시아태평양지역, 유럽에 판매해왔다.

지난해 9월에는 미국 내 모델3 구매 예약자들에게 NCA 배터리가 아

닌 LFP 배터리 탑재 모델에 대한 구매 의사를 타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장조사 업체인 가이드하우스 인사이츠의 수석 분석가인 샘 아부엘사미드는 테슬라가 가격이 저렴한 LFP 배터리를 채택해도 차량 가격을 낮추지 않고 수익을 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LFP 배터리는 삼원계 배터리보다 주행거리가 짧은 단점이 있지만, 니켈·코발트 등 상대적으로 고가인 금속이 필요하지 않아 비용이 저렴하고 열 안정성 면에서는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컨설팅업체 로스킬에 따르면

LFP 배터리는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사인 중국 CATL과 BYD 등이 생산 중이며, 전체 생산량의 95% 정도가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006400] 등 국내 배터리 업체들

은 그간 LFP 배터리를 채택하지 않았으나, SK이노베이션[096770]의 배터리 신설 법인인 'SK온'은 이달 초 LFP 배터리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kp@yna.co.kr



"가볍게 코로나19 겪은 어린이 항체 생성률 어른보다 낮아"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호주 멜버른대학 폴 리치아르디 박사팀은 21일 동료심사(peer-review) 전 논문을 공개하는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 '메드아카이브'(medRxiv)에서 경증 코로나19를 겪은 어린이의 항체 생성률은 37.0%로 성인(76.2%)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멜버른 로열 어린이병원에서 지난해 5~10월 PCR 검사로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 감염 확진을 받았으나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어린이 57명(평균연령 4세)과 성인 51명(평균연령 37세)의 혈청을 검사, 항체 생성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어린이와 성인의 체내 바이러스량은 비슷했지만, 어린이는 분석이 완료된 54명 중 20명(37.0%)만 항체가 생성됐고 어른은 42명 중 32명(76.2%)이 항체가 생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린이들은 성인 몸 안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2차 세포 면역 반응도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성인은 증상이 있는 경우 항체 생성률이 무증상인 경우보다 3배 높았으나 어린이는 무증상과 경증인 경우 항체 생성 수준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 결과는 어린이의 경우 혈청검사로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는지 검사하는 것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며 항체가 생성되지 않은 어린이는 재감염에 취약할 수 있어 백신 접종 등 보호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리치아르디 박사는 "어린이들에게 왜 항체 생성이 잘 안 되는지, 이 결과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도 해당되는지, 그리고 어린이들이 재감염에 얼마나 취약한지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citech@yna.co.kr



코로나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건강이 당신의 가족을 지킵니다



洪 "5공 시대엔 독재만" 尹 "저번에는 전두환 계승한다더니"

尹 "경선 끝나면 광주 달려가서 5·18 피해자들 보듬겠다"
반환점 돈 野주자 TV토론...TK서 격화한尹-洪 양강 전선
홍준표 "박근혜만 불면 봐준다고 했다던데" 주장...윤석열 일축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이동환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 4명은 다음 달 5일 후보 선출을 앞두고 20일 대구MBC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격돌했다.

특히 핵심 당원이 밀집한 '덧밭' 대구에서 맞붙은 후보들은 양강 구도를 형성한 윤석열 홍준표 후보를 중심으로 보수 표심을 구애하면서 더욱 선명한 대립각을 세웠다.

◇ 홍 "문 대통령 형사처벌 할 텐가" 尹 "사법 시스템에 따라야"

양강 구도를 형성한 윤석열 홍준표 후보의 공방이 두드러졌다.

포문은 홍 후보가 열었다. 홍 후보는 주도권 토론 첫 순서로 윤 후보를 지목,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특검을 받지 않으면 수사를 해서 형사처벌을 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이에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해서 그 시스템에 따라 처벌을 해도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될 사람이 누구를 처벌한다, 누구를 감옥에 보낸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자 홍 후보는 "결국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라고 일축한 뒤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끈 국정농단 수사를 언급하며 "(수사 대상자들에게) '박근혜만 불면 봐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터무니없는 사실"이라며 "중앙지검장이 누구를 신문하는 것을 봤나. 검사가 하는 것을 모르나

"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들 다 지켜보는 데서 그런 근거 없는 말씀 하지 말라"면서 강하게 반박했다.

◇尹 "전두환 발언" 난타...劉 "제2 전두환 꿈꾸나" 洪 "난 전두환 형 잡아넣은 사람"

토론회에서는 윤 후보의 '전두환 옹호 논란'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 후보가 전날 부산에서 전 전대통령의 인재 기용 방식과 경제 성과를 평가한다면서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한 것에 대해 다른 후보들이 일제히 비판했다.

유승민 후보는 "5·18과 12·12를 빼고 (전 전대통령을) 평가를 할 수가 있느냐"라며 "부동산 문제, 조국 문제를 빼면 문재인 정권 잘했다", '일본에 나라 팔아넘기지 않았으면 친일과들 잘했다', '병역 기피만 안 했으면 스티브 유 잘했다'는 것과 유사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선 공과 과가 있다고 평가하지만 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 안 한다"면서 "이유를 아느냐"고 물었지만, 윤 후보는 "말씀해 보시라"며 답을 피해갔다.

이에 유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은 5·16 쿠데타로, 잘못된 방법으로 정권을 탈취했지만 5·18과 같이 민간인에게 살인하지 않았다"면서 "전두환 정권은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공화국이란 것을 부정할 정권이다. 설사 경제를 잘했다고 해도



20일 오후 대구 MBC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대구·경북 합동토론회 시작 전 후보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후보

평가할 수가 없다"며 "혹시 윤 후보께서 '내가 제2의 전두환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시나"라고 꼬아붙였다.

윤 후보는 "5·18 정신이 헌법에 들어가야 한다고 줄곧 주장했고, 대학 시절 모의재판에서도 12·12 군사반란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역사 인식에 변함이 없다"며 유 후보를 향해 "(제 발언 중에) 앞에만 똑 잘라서 말씀하신다. 제게 이야기할 시간을 안 주고 추궁만 한다"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리고 청년에게 미래를 주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 어떤 정부의 누가 한 것이라도 정치적인, 종합적인 공과를 넘어서서 해야 할 건 해야 한다"며 자신의 견해를 굽히지 않았다.

다만 "5·18 피해자분들께서 아직도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경선이 끝나면 광주에 달려가서 더 따뜻하게 그분들을 위로하고 보듬겠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후보도 "저는 5공 시절 검사로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도 잡아넣었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5공과 단절하기 위해 30여년간 피어린 노력을 했다. 5공 시대에 정치가 있었나. 독재만 있었다"라며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아니, 지난번 대선에 나오셔서 박정희 전두환을 계승하겠다고 하시지 않았나. 본인도 전두환 (전) 대통령을 계승하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반문했다.

◇ 대장동 비판엔 한목소리...元은 띄우자 尹 "대장동 1타 강사처럼"

주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의혹 중 하나가 바로 천문학적 비용으로 추측되는 변호사 비용"이라며 "친한 사람에게 무료 변론을 해주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는 오늘 전현희 권익위원장 발언이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냐"라고 묻자, 윤 후보는 "원 후보가 하는 '대장동 1타 강사' 유튜브처럼, 국민에게 그 부당함을 알리고 투쟁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윤 후보는 "법률 변호도 경제적 가치를 가진 서비스이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은 도저히 권익위원장의 답변이라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 비용과 관련해 "그 정도 변호사를 다 구하려면 법조 상식으로는 20억 원은 최소한 더 들어야 한다"면서 "또한 변론이란 용역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안 받았더라도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유 후보도 "이 후보의 대남 의혹은 단순히 김영란법 위반 정도가 아니라, 뇌물이나 다른 불법 정치자금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더 심각한 법 위반 문제가 될 것"이라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minaryo@yna.co.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OCT. 22nd - OCT. 28th, 2021

H 마트와 함께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몸의 거리는 넓히고, 마음의 거리는 좁혀야 할 시간. H 마트 고객분들과 직원분들의 안전을 위해 6피트 안전 거리를 확보해주세요!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ID : @hmart_ma

Join the H Mart Social Distancing Campaign, to help slow down the spread of COVID-19 for you and our H Mart family. Keeping 6 feet apart will bring us together again.

ZESPRI SunGold Kiwi 제스프리 썬 골드 키위 BOX \$24.99	Fuji Apple 후지사과 PREMIUM QUALITY LB \$1.49	SOONYEOWON Tofu 수녀원 두부 SILKEN/SOFT/FIRM 14-16 OZ/PKG \$1.29	Lago Grape 라고 포도 BOX \$21.99	NONGHYUP Pear Juice 농협 보배과즙 100 mL x 16 EA/BOX \$12.99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LB \$2.49	White Cabbage 화이트 양배추 LB \$0.79	Idaho Potato 아이다호 감자 LB \$0.79	Kabocha 단호박 LB \$0.99	ROSHNI Peanut 로시니 땅콩 56 OZ PKG \$4.99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Fresh Beef Chuck Eye Roll Steak 생 목등심 스테이크 LB \$9.99	Fresh Bone-in Beef Shank 뼈있는 생 아롱사태 LB \$5.99
Fresh Pork Spare Ribs for BBQ 생 돼지갈비 LB \$3.49	Fresh Boneless Chicken Breast 뼈없는 생 닭가슴살 LB \$2.99
Frozen Cornish Hen 냉동 영계 LB \$2.49	Marinated Pork Bulgogi 양념 돼지 불고기 LB \$6.99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CHAMBADA Frozen Steamed Monkfish Smothered 참바다 냉동 마산식 아귀찜 1.52 LB/PKG \$9.99	Frozen Fresh & Delicious Spicy Pollack Soup 냉동 동태탕 21.16 OZ/PKG \$7.99
Frozen Fresh & Delicious Spicy Seafood Stew 냉동 해물탕 18.69 OZ/PKG \$10.99	Frozen Fresh & Delicious Spicy Fish Roe Soup 냉동 알탕 18.69 OZ/PKG \$9.99
Frozen Baby Octopus 냉동 꾸꾸미 16-25'S LB \$5.99	HOT SALE Fresh Salmon Steak 생 연어 스테이크 LB \$7.99

SMART CARD MEMBER ONLY

H MART SMART CARD ONLY KYONG GI ME U.S. No. 1 Medium Grain Rice 경기미 40 LB \$34.99	H MART SMART CARD ONLY HAIO Frozen Seasoned Pollack Roe 해오름 명란젓 2.2 LB \$21.99
H MART SMART CARD ONLY HAIO Yuza Tea with Honey 해오름 유자차 2.2 LB \$5.99	H MART SMART CARD ONLY CHUNG JUNGONE Gochujang 청정원 순창 100% 현미 태양초 찰 고추장 6.6 LB \$14.99

RAW NATURE Organic Black Rice 자연담은 유기농 흑미 2 LB \$5.99	HOUSE FOODS Vermont Curry 하우스 버몬트 카레 MILD/MED. HOT/HOT/8.11 OZ \$2.99	Q1 Sweet Korean Pancake Mix 큐원 찰호떡 믹스 19.4 OZ \$3.99	CHUNG JUNGONE Dried Seaweed 청정원 남해안산 청정미역 7.05 OZ \$6.99	SEMPIO Rice Noodles (Somen) 샘표 소면 1.76 LB \$4.99
DONGWON Canned Tuna 동원 참치 통조림 LIGHT STANDARD 5.29 OZ X 4 CANS /PKG \$8.99	HAIO REUM Canned Bai Top Shell 해오름 골뱅이 통조림 14.1 OZ \$5.99	DONGWON Canned Luncheon Meat 동원 런천미트 12 OZ \$2.99	JINGA Beef Bone Flavored Soup 진가 사골곰탕 16.9 FL OZ X 6 EA /BOX \$10.99	HAIOREUM Imitation Crab Meat Sticks 해오름 게맛살 2.2 LB \$4.99
HAITAI Matdongsan Peanut Crunch 해태 맛동산 10.58 OZ \$3.99	ORION Turtle Chips 오리온 꼬북칩 2.82 OZ X 7 EA /BOX \$9.99	HELLO HOME Rose Melamine Tray 헬로 홈 황실 장미 쟁반 MEDIUM 37 CM X 22.5 CM LARGE 43 CM X 26.5 CM \$2.99 \$3.99 \$1.99 \$2.99 \$3.29	ZIPBOB Food Container 집밥북 저장 용기 500 mL (4 PCS/SET) \$4.99 \$3.29	FLORA Maring Quilts Comforter 플로라 마리앙 모달코튼 차렵이불 QUEEN - 190 CM x 220 CM \$79.99 -\$99.99

KOREA'S GREATEST GIFT, MADE FRESH IN AMERICA.

Flavorful Apples, Korean Hot Peppers, Delicious Cabbage... Just Some of the many better ingredients that make our TOBAGI Kimchi the one you crave. Find it exclusively at H Mart.

한국인의 자존심, 토바기 김치! 최고 품질의 재료들로 직접 생산을 위해 만들어 더욱 맛있습니다.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사장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부사장 애나 정 617.780.1675 Boston Branch Manager anna@bostonpremierrealty.com
이사 이제봉 781.654.5281 South Shore Branch Manager jeble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박성종 617.304.7001 Director & manager of Newton branch sj@bostonpremierrealty.com
Steve Kwon 508.326.6285 Director of HR/Customer relationship Steve@bostonpremierrealty.com
Kathy Eunsuk Song 413.313.4165 Manager of Hadley Branch kathysong2019@gmail.com



크리스틴 손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오성빈
978.505.3736
osb@bostonpremierrealty.com



Nikkie Park
617.447.0591
nikkiepark@bostonpremierrealty.com



이현주
401.935.3397
hyunju@bostonpremierrealty.com



최은경
781.690.4389
chrischoi@bostonpremierrealty.com



사라 유
617.838.5787
sara@bostonpremierrealty.com



Rick Shin
781.530.0034
ricks@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다이애나 김
617.271.2037
diana@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지나 최
978.866.3248
gina@bostonpremierrealty.com



최진민
617.877.0387
jinchoi52@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콥 신 617.710.8836
jacob@bostonpremierrealty.com

앤드류 리 857.540.1588
andrew@bostonpremierrealty.com



피터 주
617.780.7839
peter@bostonpremierrealty.com



이영순
781.800.3412
bostonyi@bostonpremierrealty.com



송문주
213.503.0397
marcia@bostonpremierrealty.com



미키 최
413.507.1402
mickichoi@gmail.com



한혜숙
781.999.1214
hhan@bostonpremierrealty.com



샬리 임
781.690.4309
hyunmi@bostonpremierrealty.com



Ritika Chopra
617.697.1191
rchopra@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9952
nancywang6000@bostonpremierrealty.com



황수진
617.538.6973
sujinhwang1@gmail.com



레이첼 김
617.852.7485
rachelkim@bostonpremierrealty.com



Jason Chen
978.277.8439
song@bostonpremierrealty.com



Henry Nguyen
617.803.8341
henry@bostonpremierrealty.com



John Tran
617.406.98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차민영
651.402.5194
minyong@bostonpremierrealty.com



제이크 김
781.956.0409
drjakekim@bostonpremierrealty.com



PREMIER WORKS

좋은 사람들이 우리집처럼 여기고 정성껏 일하는 PREMIER WORKS. 각각 다른 레벨의 일에 맞는 인력이 투입되어서 비용을 절감합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인력이 공정 관리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합니다.

홈 리노베이션, 홈 익스텐션, 핸디맨잡, 배관, 전기, 난방, 커머셜/식당 디자인 시공.

“ I just wanted to say thank you for a job well done. The floors look terrific! I know the project was a challenging one, but I'm happy to say you and your team more than met the challenge. In addition, a concern I've had with contractors is not following up with loose ends. I'm happy to report all follow up requests were completed in a timely manner. In short, I highly recommend and will continue to use Premier Works for all of my flooring needs!

Sincerely, Mr. M. Malden, MA ”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Property Management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건물을 관리해 드립니다. 건축가, 부동산, 건축시공 전문가들이 함께 관리 합니다. All size condo, single family, multi family, commercial, Hands Free, All in One Service

렌트비 관리, 유지관리, 테넌트관리



Premier Realty Group
617.515.1162
info@bostonpremierrealty.com

WEEKLY SPECIAL



10 Nouvelle Way

Listed Yesterday,
Offer Accepted Today !!

보스톤 전망대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은한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계원필경 (桂苑筆耕)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 해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일이다. 시주석이 학대 회담 환영사에서 뜻밖에 최치원 선생의 시 "범해(푸른바다)에 배 띄우니 긴 바람이 만리를 통하네"라고 시의 앞구절에 운을 띄웠다. 이 시는 최치원 선생이 885년에 17년간의 당나라 생활을 정리하고 신라로 돌아가는 황해 배길에서 자신의 착잡한 마음을 읊은 시로 최치원이 모시던 절도사 고병이 황소의 난을 제압하는데 실패하고 절도사직에서 파면되자 최치원도 암담한 마음으로 험강 왕때 신라로 돌아오게 된다.

두분 대통령과 함께 최치원 선생의 시를 것 드린 것은 한중간의 역사교류에서 최치원 선생이 상징적으로 최적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범해〉 전문을 소개하면,
돛달고 푸른 바다에 배 띄우니 강한 바람 불어 만길로 나아가네.
뗏목을 타니 한나라 사신 생각나고 약초를 캐니 진나라 삼천공자 생각나네.

해와 달은 허공에 떠있고 하늘과 땅은 태극 가운데 있네.

봉래산이 지척이라 가까이 보이니 나 또한 신선을 찾아가리.

* 여기서 말하는 한나라 사신은 "장건"을 말하고 봉래산은 전설에 나오는 영주산, 방장산과 함께 나오는 중국 삼신산 중의 하나이다.

서기 2007년에 최치원 선생의 사상과 문학, 예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으로 중국 내무부 외교부가 최초로 승인한 외국인 기념관이 장수성, 양주시에 건립되었다. 예전에 수양제의 당성(唐城) 유적지 옆에 황소의 난을 진압하기 위한 회남절도사 주재소가 있던 그 자리에 기념관을 건립하였다. 최치원은 고병 절도사 밑에서 도통순관으로 근무했는데, 유명한 토황소격문과 필생의 자서전 계원필경은 이곳에서 많이 편집되었다. 계원필경은 모두 20권으로 되어 있는데 창작한 시문집만 만여수가 되어 그중 1/10만 편집되었고 나머지는 폐기하였다.

"계원필경"의 제목은 모래를 헤쳐 금을 찾는다는 마음으로 병영에서 기식하며 생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붓으로 농사를 대신한다는 의미로 필경(筆耕)으로 제목을 삼았다고 한다.

이조 성종때 동국통감이라는 역사서를 편찬한 바 있는 서거정은 계원필경이 우리나라 최초의 시문집이고 역사서로 신당서에 실릴 만큼 국제적인 저술로 평가하고 있었다.

양주는 양자강 북쪽 대운하 기슭에 자리잡고 있었던 수양제의 궁성으로 한 때 마르코 폴로가 관리로 근무했던 국제도시로 유명한 시인 백거이(白居易)는 50여년전에 이곳 용

교에 별장을 짓고 양주의 풍광을 만끽하며 여생을 보냈다고 한다.

최치원이 처음으로 벼슬길에 올랐던 리수이 현은 양주에서 뱃길로 2시간 거리에 있었다. 이곳 중학교에서는 최치원의 토황소격문을 암송하고 있고 이곳의 화가 왕쥘위는 최치원의 모습을 화폭에 담아내고 있는데, 최치원이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 두순학과 교류하는 장면과 아름다운 두 처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었다.

최치원의 첫 발령지는 리수이 현으로 그의 나이 20세때였다. 어느날 최치원은 리수이 현에서 커다란 무덤을 발견하였다. 이름하여 쌍녀분. 정략 결혼은 비관한 두 자매가 자살해서 이곳에 묻혔다는 사연을 전해 듣는다. 억울하게 죽어간 두 자매를 위해 최치원은 시를 지어 이들을 위로하였다. 그러자 꿈속의 두 자매는 "이곳에서 오랜기간 있었지만 유람을 오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시를 써서 애도를 표현하는 사람은 없었다". 만약에 관찰다면 다시 만나기를 원하였다. 그날밤 최치원의 숙소에 두 자매가 찾아온다. 그들은 밤새 시를 짓고 사랑 이야기로 밤을 지새웠다.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쌍녀분을 찾기도 와 제사를 드리고 소원을 빌고 복을 기원했다고 한다. 리후이 현의 전설 이야기는 당나라는 물론이고 송나라, 원나라와 명청을 거쳐 계속 내려오고 있다.

토황소격문(討黃巢檄文)

최치원은 12살때 조기 유학을 했기 때문에 14살이 되어야 국가감에 입학할 수 있었다. 그래서 최치원은 14살때까지 장안의 명사집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다. 어느날 명사가 최치원에게 시를 써보라고 하자 단번에 써내린 것이 유명한 추야우중이었다. 명사가 감탄하며 앞으로는 다른 일은 하지 말고 글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하였다.

추야우중(秋夜雨中)을 소개하면,
가을 바람에 괴로이 읊조리니 세상에 날 알아주는 이 없네.

창밖엔 밤 깊도록 비만 내리는데 등불 앞에 내마음 만리 밖을 내닫네.

어찌되었든 최치원이 국가감에서 제대로 공부를 시작한 것은 14살때부터였다. 그리고 4년후인 18살에 빈공과 시험에 합격하였다. 비록 장원으로 합격했지만 관직이 나오지 않아 2년동안을 허송세월하면서 서류를 대필해주며 끼니를 때웠다. 다행히 2년만에 율수 현위에 임명되었다. 현위 임기를 3년만에 마치자 다시 대기발령 상태가 되었다.

잠시 백수가 된 최치원은 산에 들어가 박학평사과라는 중국 내국인을 대상으로한 시험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는 현직 관리를 대상으로한 일종의 승진시험으로 조선시대의 중시(重試)에 해당된다. 그러나 당시 중국은



중국 정부가 서기 2000년에 설립한 최치원 기념관의 동상



최치원과 당 시인 두순학의 교유



최치원의 첫임지 양주성



중국 양주의 최치원 기념관과 당성 유적지



쌍녀분의 한을 풀어주다

황소의 난으로 온나라가 혼란스러워 박학평 사과는 영영 열리지 못했다. 결국 관직에 있던 시절에 나오던 녹봉이 떨어져 배를 굶게 되었다. 당시 당나라는 황소의 난을 진압할 인물로 양주의 회남절도사 고병을 임명하였다. 절도사 고병은 신당서에 열전으로 기록될만큼 중국 역사에서 꽤나 중요한 인물이었다. 고병의 성가가 높아지자 도처에서 인재들이 모여들었고 최치원도 줄을 대게 되었다. 이때 최치원의 과거 동기이며 가장 절친한 친구인 고은과 왕랑충들이 절도사 고병에게 최치원을 적극 추천하였다. 최치원은 외국인이지만 그의 재능이 출중하여 뽑히게 된 것이다.

당시에 당나라는 정치 혼란과 흉년속에 최대의 혼란기에 있었다. 소금 장수 황소가 일으킨 난리는(875-884) 산둥지방에서 시작되어 당나라 전역을 휩쓸고 수도 장안이 함락되었다. 이때 세상에 나온 것이 "격황소서"로 총사령인 고병을 대신하여 최치원이 격문을 쓰게 되었다. 이로 인해 최치원의 문명이 온 세상에 알려지는 데는 긴 세월이 걸리지 않았다. 당나라 사람들은 황소를 격퇴한 것은 칼로 무찌른 것이 아니고 최치원의 격문이라고 하였다. 토황소격문에서 최치원은 처음에는 도덕경, 춘추전의 구절을 인용하여 황소르 꾸짖었다.

"너는 듣지 못했느냐. 도덕경에 회오리 바람은 하루 아침을 못 넘기고 소나기는 하루를 못넘긴다고 하였으니 천지자연도 오히려 오래가지 못하거늘 하물며 사람이랴!

너는 또 듣지 못했느냐? 춘추전에 하늘이 나쁜 사람을 놓아주는 것은 그에게 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흉악함이 더 심해지기를 기다려 벌을 주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토황소격문을 읽고 나서 이어령 교수는 최치원 선생의 성토는 강약의 리듬을 갖춘 성토문이라고 극찬하였다. 성토의 결정판에서 최치원은 "오직 사람들만 너를 죽이고 싶어 할뿐만 아니라 땅속의 귀신들까지도 이미 암암리에 너를 처단할 논의를 마쳤느니라. 비록 네가 숨은 불어있어 혼이 논다고 하지만 벌써 정신은 달아났을 것이다."라고 몰아부쳤다.

그리고 결정타는 "너의 몸뚱이는 도끼날의 기름이 되고 뼈는 수레 밑의 가루가 될 것이며 처자는 잡혀죽고 권속들은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는 우리 임금의 군사는 정벌하되 싸우는 것이 아니며 눈에는 은혜를 앞세우고 죽이는 것은 뒤로한다." 황소가 이 구절에 이르자 간담이 서늘해져 저도 모르게 침상에서 떨어져 무릎을 꿇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진다.



간편하고 신속한 주택 융자

안녕하세요, 켈리 김입니다. 개인주택을 꿈꾸는 모든 분들은 자신의 여러 상황 때문에 개인주택 소유의 꿈을 접기도 합니다. 20년간 겪어온 많은 모기지 대출 경험으로 완벽한 대출매칭을 설계해 드립니다.

현금 인출

모기지 재 융자

후회없는 최상의 결과로
만족시켜 드립니다.

낮은 이자율

사전 승인

상담 및 신속 진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연락주세요.

617.733.5014

Testimonial

저는 이분 아니었으면 집을 장만 못했습니다. 준비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집 장만. 저희 담당 리얼터 분이 이런분은 없다면서 소개해준 켈리님 정말 저는 정말 행운아였습니다. 급하게 시작한 상태이고 준비가 미약한 제 상태에서 괜찮은 집을 찾았지만 주변에서 안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제 상황을 맞춰서 시간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켈리님을 보고 만나지도 않았고 느껴지는 강한 믿음!! 이분은 정말 이분야에서 정말 최고이신것 같습니다. 미국말이 더 편하시분인데도 한국말로 자세히 제가 알 수 있도록 언제나 빠르게 진행해주시고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클로징할때 저보다 더 기뻐해주시고 축하해주신 켈리님!!! 저희 가족들은 만나면 이분의 알게 된걸 큰 행운입니다. 이 소중한 인연 끝까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가족의 권유로 집을 살준비도 못한채 최은경님을 소개를 받고 집을 장만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무도것 모르고 시작한 저한테 1부터 10까지 자세한 설명으로 집을 살때 어떻게 해야하면 계속 연락해주시면서 많은도움을 주셨습니다. 안되면 하는수 없다고 생각한 저한테 포기하면 안된다고 말씀해주시고 많은것 도와주셨습니다. 마지막 클로징 할때도 같이 해주시고 정말 당신일처럼 기뻐해 주셨습니다. 또한 저는 가족들은 이분하고 집이면 사업장이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알게된 소중한 인연 끝까지 이분하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Chris Choi (Boston Premier Realty, Phone 781-690-4389)



켈리 김 Licensed in MA, NH, RI, FL, NJ
Kellie Kim Thielen

주택대출 전문가

nmls #2027241

617.733.5014

kkimthielen@radiusgrp.com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 식당 온라인 오더와 온라인 페이먼트를 한자리에서 해결
- 헤어와 네일 살롱의 온라인 예약과 온라인 페이먼트를 컴퓨터로
- 다양한 옵션을 완비한 디펜더블 컴퓨터로 간단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식당	살롱
온라인 음식 주문과 지불 epipay™	온라인 예약 관리 epiday™
온라인 매장 관리	온라인 매장 관리
고객 관리	고객 관리
디지털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
GIFT CARD 프로그램	GIFT CARD 프로그램
종업원 관리	종업원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Dependable Computer is an authorized independent reseller of United POS Solutions, Inc."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thony (Dubleu) Parish (Korean Church)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은 새 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 중순에 시작합니다.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 미사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Contact: stadparish@gmail.com 617-538-2711

45 Ash St, Newton MA 02458 / 617-668-2711
stadparish@gmail.com / stadparishchurch.org
www.facebook.com/stadparish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살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 목사: 권총상
Faith Theological Seminary, M.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중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원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sfirstchurch.com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6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3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교회: 토 9:30~12:30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골프 레슨

US GTF 최성조 프로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Leader in the Field of Golf Instruction

Master Golf Professional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sj.usgtf@gmail.com

857.600.6755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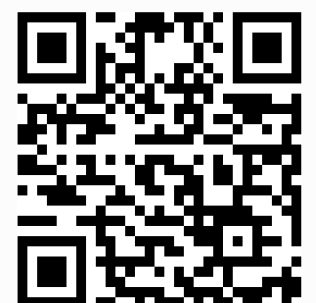


백신을 접종해

#여러분의 가족을 보호하세요

무료 코로나-19백신을 접종받으세요
 신분증, 건강보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백진접종장소를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찾으세요
[MASS.GOV/COVIDVACCINE](https://mass.gov/covidvaccine)



Asian American Civic Association



Eastern Bank

JOIN US FOR GOOD

Michelle

FOR MAYOR

저는 이민자의 딸이고 엄마이며 커뮤니티의 구축으로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이 있습니다.

저는 보스턴이 우리 모두가 번영할 수 있는 따뜻한 도시가 될 수 있으며,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11월 2일에 꼭 투표하세요

Michelle 은 지난 10년 동안 시청에서 우리 커뮤니티에 대담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가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면 다음이 가능합니다.

- 실로 저렴한 주택 공급
- 우리 가족들에게 마땅히 제공되어야 할 공립 학교 체제의 구축
- 인종적 빈부 격차의 해소
- 고장난 교통 시설의 개선
- 기후 대책에 대한 세계적 지도력 성취

지지 인사:



ELIZABETH WARREN
미국 상원의원



AYANNA PRESSLEY
미국 하원의원



KIM JANEY
보스턴 시장



SONIA CHANG-DIAZ
주 상원의원



TRAM NGUYEN
하원의원

PAID FOR BY THE WU COMMITTEE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656) 변하지 않는 투자 교훈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미국에서의 이민 생활은 하루가 정신 없이 지나간다. 이렇게 바쁜 삶 속에서 성급하게 내리는 판단과 결정은 잘못으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잘못된 '투자 결정'은 노후대책에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만물의 움직임에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다. 기본적인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칙을 이용하여 달나라 여행을 갔다가 무사히 돌아온다. 투자하는데도 변하지 않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순서 없이 함께 나누어 본다.

하나, 투자하며 발생하는 '경비(Expense, Cost, Commission)'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보험인, 재정설계사, 브로커, 등은 발생하는 모든(Total) 경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금융업에서는 '싼 것이 비지떡이다.'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확히 경비를 모르면서 하는 투자는 잘못된 투자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그야말로 '밀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둘,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격적

인 투자보다 방어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먼저 잃어서는 안 된다. 잃을 때는 손실의 폭이 작아야 한다. 운동 시합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공격적인 시합으로 어느 한 게임을 이길 수 있지만, 최후의 우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방어가 필수이다.

셋, 마음의 감정(Emotion)으로 사고파는 투자는 실패로 이어지기 쉽다.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팔고 주식시장이 상승하며 다시 하는 투자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주식시장을 염두에 두지 않고 꾸준히 하는 투자가 제대로 하는 투자이다.

넷, 투자는 유동적(Liquidity)이어야 한다. 오늘 투자하고 어떠한 이유로 돈을 찾고 싶으면 그다음 날 찾을 수 있어야 한다. 투자 돈이 묶이는 부동산 투자(Non-Trade REIT), 벌금을 내고 나와야 하는 어뉴어티(Annuity), 등으로는 투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투자 대부분은 만든 사람과 파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

지만 투자한 사람에겐 그만큼 손실로 이어진다.

다섯, 모든 투자는 위험성이 있다. 현금도 물가 상승이라는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는 투자 위험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투자로 돈이 얼마나 불어날 것인가만을 기대한다.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투자는 시간문제일 뿐 투자 실패로 이어진다.

여섯, 미래를 아는 사람은 없고 미래를 알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분명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미래를 알고 싶어 한다. 이러한 수요가 있기에 미래를 예상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다. 주식폭락을 자주 예상하다 보면 언젠가는 맞아떨어진다. 죽은 시계도 하루에 정확히 두 번 맞는 경우와 비슷하다.

일곱,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침서는 과거이다. 과거는 확률로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90% 실패하더라.'라고 말할 때 그렇게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했더니 성공

했다.'고 말할 때 그대로 따라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 미래를 막연히 예측하지 말고 과거를 돌아켜 보는 것이 미래를 예상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여덟, 투자자는 폭락하는 주식시장에서 이성적인 마음을 가지기 어렵다.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도 유망한 투자종목이나 투자 시기를 맞추기에는 어려움이 인식해야 한다.

아홉, 투자자에게 조절할 수 있는 것과 조절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조절할 수 없는 일은 환율, 이자율, 투자자들의 마음, 등이다. 조절할 수 없는 일에 시간과 정성을 소비하기보다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조절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 꾸준한 저축, 투자 경비, 분산투자, 등이다.

주식투자에도 변하지 않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다. 기본에서 벗어난 투자는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22세 풍월주風月主 양도공良圖公(8)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도 능보는 양인통에 해당되지 않은 서민/천민 출신이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

다음으로 화랑도들과 관련이 있는 여자들은 봉화奉花가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낭두郎頭들의 딸이었다. 봉화는 화랑도들이 수련하는 선문仙門에 기거하면서 화랑들의 총애를 받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였다. 그들은 화랑도의 총애를 받아야만 시집을 갈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꿈은 하루라도 빨리 화랑도와 청례靑禮를 치르는 '거사'였다. 화랑도의 총애를 받은 봉화는 봉로화奉露花라고 하였고, 화랑의 아들을 낳은 봉화는 봉옥화奉玉花라고 하였다. 봉로화나 봉옥화가 되지 못한 봉화는 낭두들에게 시집을 갈 수가 없었다. 낭두와 결혼을 못한다면 결국 그들은 선문에서 늙어 예졸들의 첩으로 가는 것이 관례였기에 봉화들은 화랑의 총애를 받기 위해 온갖 고초를 다부렸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유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빼어나게 아름다운 서민들의 딸로서 낭문郎門에 속하게 하였으며 30세가 되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낭문이란 화랑도들이 속한 선문과 달리 낭도들이 속한 곳이다).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내려오던 이런 불합리한 낭정의 폐단을 김양도는 22세 풍월주의 위에 오르면서 모두 금지시켰다.

또한 낭두들의 등급을 7급에서 9급으로 늘

려 낭두들의 벼슬길을 넓혔다.

먼저 낭도郎徒란 일반 서민들로 구성된 낭도들인데 화랑도를 출세의 길로 이용하였다. 그리고 낭두郎頭는 화랑과 낭도 사이에 위치한 화랑도의 중간 세력 집단으로, 화랑도 조직에서 화랑이 아닌 낭도들 중 그 우두머리를 낭두라고 하였다. 나중에는 그들이 특정 세력 집단으로 성장하여 화랑도의 낭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그 지위도 상승되었다. 낭두는 처음에 상전과 상랑의 마복자들만이 될 수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 원칙도 조금씩 허물어지기도 하였다. 양도가 22세 풍월주가 되기 전에는 7등급의 낭두가 있었는데 양도가 취임하면서 9등급으로 늘렸다.35)

낭정의 폐단을 금지하고 낭두의 직급을 늘리(올리)면서 조직내의 개혁을 하였지만 낭두들의 세력은 점점 확장되었고 그 위세는 올라만 가고 있었다. 24세 풍월주 천광공天光公(643-647년 역임)에 와서는 가야파의 거두 찰인(찰인의 딸은 17세 풍월주 김염장의 첩이다)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대노두의 자리에 있었고, 처첩과 자녀가 100을 헤아렸으며, 출입하고 거동하는 것이 완전히 상전(전임 풍월주)과 같이 했다. 뿐만 아니라 사위는 대도두였으며, 두 아들은 도두로서 처첩 수습을 데리고 살았다.

신라의 화랑도는 준수한 서민(의 아들들)

도 입문할 수 있었다. 다만 그들은 각기 다른 조직체에서 수련과 수양을 하였다. 화랑도들은 선문仙門에서 기거하였지만, 서민의 아들들인 낭도들은 낭문郎門에서 기거하였다. 서민의 아들들인 낭도는 13-14살에는 동도童徒가 되었고, 18-19살에는 평도平徒가 되었으며, 23-24살에는 대도大徒가 되었다. 대도 중에서 입망자入望者는 망두望頭라고 했다. 또한 공과과 재주가 있는 낭도를 천거하여 신두臣頭로 삼았는데, 신두는 낭두가 될 수 없었고 망두만이 낭두가 될 수 있었다. 낭도들은 30살이 되면 병부로 속해서 군인이 되거나, 또한 집으로 돌아가 생업(농공업)에 종사하거나 향리의 장장이 되기도 하였다.

35) 낭두에는 낭두郎頭, 대낭두大郎頭, 낭두별장郎頭別將, 상두上頭, 대두大頭, 도두都頭의 등급이 있었다. 그리고 양도가 22세 풍월주에 취임하면서 7등급의 낭두를 9등급으로 늘렸다. 즉 도두 위에 대도두大都頭와 대노두大老頭를 더했다. 아마 낭두가 되기 위한 모든 자격을 갖춘 최하위 직급인 망두望頭를 포함하여 9등급이라고 한 것 같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637년 김양도가 마침내 22세 풍월주에 취임하였다. 그의 나이 28세였다(양도는 610년 생이나 만 27세로 풍월주에 올랐다). 그러자 5살이나 연상인 부인 보랑은 스스로 자신의 색이 쇠하였다면서 화주花主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없으니 자신의 침비枕婢였던 능보能寶로 하여금 화주로 맞게 하였다(당시 능보는 '승진'하여 난방暖房으로 있었다). 그러나 양도는 부인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자신은 보종공(보랑의 친부)의 사자(대를 잇는 아들)에 지나지 않으며, 부인은 보종의 적녀로서 화주의 자격이 있었기에 자신이 풍월주가 되었다면서, 능보를 화주로 맞기를 거부하였다. 기록에는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지는 않는데 분명 화주에게는 화랑도와 관련된 어떤 중책이나 주어진 임무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화주花主는 풍월주의 아내를 가리키는데 화주가 되는 조건은 상당히 까다로웠다. 미모는 기본이었고 반드시 진골정통이나 대원신통에 속한 인통姻統이어야만 가능했다. 아마

마운트 모나드낙(Mt. Monadnock) 정상에 올라!

Jane Choi (닉: 최씨롱)

토요일 오전 설레는 등산길. 비가 북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기상 예보에 산악회 여정이 남쪽에 있는 Mount Monadnock(Pumpelly Trail) 으로 바뀌었다. 보스턴에서 십여 년간 꾸준히 등산해오신 산악회 분들의 발 빠른 결정에 감탄하며, 드디어 도착한, 일본 후지산 다음으로 등산객들이 제일 많이 찾는다. Mount Monadnock!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유료 주차장을 피해, 경치가 더 아름답다는 북쪽 길로 올라간다는 결정을 듣고, 역시 산을 잘 아는 등산회랑 함께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올라가는 길, 처음 까일의 평평한 산책길이 끝나자, 어마어마한 경사의 바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행히 사람들이 많이 밟지 않은 길이라서 바위들이 미끄럽지 않아 (다시 한번 산악회분들의 지혜에 감사하며!) 쉽게 올라갈 수 있었다. 그래도 뒤를 돌아보면, 아래가 다 보여 강심장만이 올라올 수 있다. 그렇게 올라올라도

착한 정상! 정상에서 보는 경치는 정말 훌륭했다. 올라오며 굉장히 힘들었는데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밥이 약간은 굳어 꾸들꾸들해진 내 도시락을 꺼내 먹는데, 옆에서 건네주신 시래기된장국. 정상에서 밥 한 숟갈에 국 한수저 먹으니 정말이 기분은 유명한 레스토랑을 몇 시간 줄 서서 기다리다가 제일 맛있는 메뉴가 나와 드디어 한입 먹어볼 때와 맞먹는 기쁨이었다! 또 산악회분이 아침부터 부지런히 싸 오셨다는 맛있는 김밥 한 줄까지 든든히 먹고 이보다 행복할 수 없다 싶을 때, 커피믹스가 지타주시는 게 아닌가. 산정상에서 운동 후 마시는 믹스커피는 내가 마셨던 커피 중에 손꼽아 맛있었다! 내려오는 길, 앞 그룹에서 떨어져 나와, 바윗길을 혼자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점점 길이 험갈리기 시작했다. 길 도우미가 되어주는 돌담들을 꾸준히 따라왔지만, 슬



슬 미아가 될까 걱정이 되어, 큰 바위 앞에서 뒤 분들을 기다리기 시작했는데, 딱 같은 등산회 분이 날 찾아주셔서 다행히 그룹에 다시 조인할 수 있었다. 밑으로 내려가니 등산회 회장님을 비롯한 앞

그룹 분들이 날 열심히 찾고 계시는 걸 보고 죄송한 마음이 바다처럼 밀려왔다. 그래도 이렇게 찾아 주신다니 마음속으로는 안심이 되었다. 산을 잘 알지 못하는 저(산알못

)를 무사히 등산시켜주신 보스턴 산악회 분들 너무 감사드리며, 곧 있을 가을 단풍이 만발한 등산은 얼마나 아름다울지 생각만 해도 설렌다!

10월 24일 - 10월 30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귀를 활짝 열어두어야</p> <p>●운수: 어디를 가든지 귀를 활짝 열어두어야 하겠습니다.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 원가 구매할 계획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를 노릴 만합니다. 원하던 것을 좋은 가격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 사랑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미명하고 좋은 상대를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드디어 인연의 짝이 나타납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27, 30일 길일. 25, 28일 주의.</p>	<p>소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p> <p>●운수: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세요. 자식이 하는 잘못은 고스란히 부모가 지고 가야 할 몫이 됩니다. ●금전: 자신이 지금 힘들 게 열심히 쌓고 있는 것이 금방 무너질 모래성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애정: 한쪽에서는 하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 하지 말라 하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24, 28일 길일. 26, 29일 주의.</p>	<p>범띠 조금씩 회복되고</p> <p>●운수: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일이 해결될 수 있으니 미리 앞서서 걱정하지 마세요. ●금전: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의 돈은 융통이 될 것입니다. ●애정: 명쾌해지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25, 29일 길일. 27, 30일 주의.</p>
<p>토끼띠 자신감이 샘솟는</p> <p>●운수: 머리가 맑아지고 몸 상태가 좋아집니다. 무엇이든 지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샘솟는 때입니다. ●금전: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큰 이득이 될 수 있는 고급정보도 얻게 될 것입니다. ●애정: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서로 간에 알게 모르게 쌓였던 장벽을 한순간에 다 허물어트릴 수 있을 것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26, 30일 길일. 25, 28일 주의.</p>	<p>용띠 꼼꼼히 분석하고 따져보아야</p> <p>●운수: 내 것으로 생각하고 잡고 있으면 힘이 들지만, 손에서 내려놓는 순간에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금전: 전혀 조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의 흐름을 꼼꼼히 분석하고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 ●애정: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다고 해서 시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롭게 생긴 불안감으로 밤잠을 못 이룰 수 있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7, 28일 길일. 26, 29일 주의.</p>	<p>뱀띠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p> <p>●운수: 무작정 답을 기다리고 있지나 답답해집니다. 이런저런 고민을 하게 되는 때입니다. ●금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머릿속으로 계산한 것과 돌아오는 결과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애정: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때입니다. 오랜 세월 참았던 인내심이 바닥이 드러나고 한계점에 다다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5, 28일 길일. 27, 30일 주의.</p>
<p>말띠 삶에 밀거름이 된다는 것을</p> <p>●운수: 상황을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으로만 보는 것은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금전: 이런저런 제의가 들어오니 생각이 많아집니다. 동업이나 사업투자에 대한 제의도 들어옵니다. ●애정: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좀 더 신경 쓰도록 하세요. 자신을 빛나게 하고 앞으로의 삶에 밀거름이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6, 29일 길일. 25, 28일 주의.</p>	<p>양띠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는</p> <p>●운수: 여기서 멈춰야 하는지 아니면 더 가야 하나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가던 길을 멈추고 새로운 판을 짜야 합니다. ●금전: 돈은 들어오나 나가는 것이 많으니 모으기가 어렵겠습니다. ●애정: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는 격이 되기 쉽습니다. 당장은 지금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5, 30일 길일. 26, 29일 주의.</p>	<p>원숭이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니</p> <p>●운수: 소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함께 의논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혼자서 생각하는 것보다 둘이서 의논하면 더 좋은 답을 얻게 됩니다. ●금전: 금전운이 좋은 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손조롭게 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애정: 어깁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이 출가 분해지는 때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니 관계도 좋아집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8, 29일 길일. 24, 30일 주의.</p>
<p>닭띠 가뭄에 단비가 내리는</p> <p>●운수: 이럴까 저럴까 결정하지 못하던 상태에서 벗어나니다. 결정하고 나면 몸도 마음도 편해지고 가벼워집니다. ●금전: 가뭄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절실하게 필요한 때에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끌어오던 매매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애정: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상대에게 끌리는 감정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4, 27일 길일. 25, 28일 주의.</p>	<p>개띠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p> <p>●운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금전: 한다고 했는데 노력한 것에 비해서 결과가 적어 적잖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이번만 있는 것이 아니니 다음을 기약하고 용기를 내세요. ●애정: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이 꼬리를 물고 따라 다닙니다. 빨리 생각을 바꿔보세요. 94, 82, 70, 58, 46, 34년생은 25, 27일 길일. 24, 26일 주의.</p>	<p>돼지띠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p> <p>●운수: 갑자기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약속은 잡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막연히 어떻게 잘 되겠지 믿고 기다리지 말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애정: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와 정반대의 생각을 하거나 반대편에 서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95, 83, 71, 59, 47, 35년생은 26, 29일 길일. 24, 27일 주의.</p>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스시맨 풀타임, 파트타임 구합니다.
T. 508-655-3951, 978-494-2712

내탁물에 있는 옷가게에서 성실하게 일하실 분을 찾습니다.
영어 가능하신분.
T. 617-543-9656(Jom)

브루클라인 6개월된 아기 돌봐주실 분 구합니다.
화, 목요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30분
T. 410-215-3301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좋은 조건으로 리틀부산 식당 판매합니다.
렌트 저렴, 좋은 위치, 리커 라이선스
주인 은퇴, 상담 환영합니다.
T. 978-897-5107

생활서비스

광고 문의 617-254-4654

보스톤지역 자동차 출장 수리 헤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마이 네임' 한소희 "한소희 같지 않단 반응이 제일 좋아요"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배우 한소희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마이 네임'으로 가녀린 이미지를 내려놓고 강인한 누아르 주인공으로 변신했다.

한소희는 2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기억에 남는 시청자 반응으로 '한소희 같지 않다',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배우구나'라는 평가를 꼽으며 "단편적으로 비치는 내 이미지에서 조금은 탈피했다는 반응들이 좋았다"고 말했다.

'마이 네임'은 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찾기 위해 조직에 들어간 지우(한소희 분)가 새로운 이름으로 경찰에 잠입한 후 마주하는 냉혹한 진실과 복수를 그린다.

흰 피부에 긴 머리카락으로 여성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한소희는 작품 속에서 머리카락을 턱선까지 단발로

자르고 서늘한 눈빛으로 돌변했다. 데뷔작 '부부의 세계'에서 유부남과 사랑에 빠진 지역 유지의 무남독녀 외동딸 모습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다.

한소희는 극 중 칼에 찔리고, 좁은 복도에서 주먹과 발길질로 장정 여러 명을 쓰러뜨리는 강도 높은 액션 연기를 안정감 있게 소화했다는 평을 받는다.

그는 작품을 시작할 당시에는 운동의 '운'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촬영 전 4개월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액션 스퀴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했다. 체력을 키우려 음식도 마음껏 먹은 탓에 체중도 10kg 늘었다고 했다.

그는 이미지 변신을 꾀한 이유를 묻자 "연기를 하면서 늘 한계에 부딪혔고, 그러다 보니 만족하지 못했다"며 "그



래서 ('마이 네임'을 통해) 내 한계를 시험해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촬영하면서 다치기는 많이 다쳤는데 큰 사고는 없었다. 베이고 멍들고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웃었다.

한소희는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놔다. 여배우로서 보이는 모습에 신경을 많이 쓸 법

도 한데, 생체기 가득한 지우의 얼굴을 잘 표현하기 위해 화장을 하지 않은 채 촬영하겠다고 먼저 제안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는 "팬들에게도 외모는 빈껍데기라는 표현을 많이 한다"며 "일부러 망가져야겠다기보다는 많은 새로운 면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음원퀸' 아이유...신곡 '스트로베리 문' 음원차트 정상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가수 아이유가 19일 발표한 신곡 '스트로베리 문'(strawberry moon)이 음원차트 정상을 차지했다.

소속사 에담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 곡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멜론 톱 100 차트 1위를 기록 중이다.

'스트로베리 문'은 지난 3월 정규 5집 '라일락' 이후 약 7개월

만에 선보인 노래로 섬세한 목소리와 몽환적인 신스 사운드가 가미된 팝 록 장르다. 경쾌한 리듬과 곳곳에 담긴 일렉트로닉 요소가 조화를 이룬 것이 특징이다.

아이유는 앞서 '제제', '레드퀸' 등에서 호흡을 맞춘 작곡가 이종훈과 함께 작곡했다. 작사는 아이유가 단독으로 맡았다.

tsl@yna.co.kr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보스톤공과

코로나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건강이 당신의 가족을 지킵니다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 시

삶은 어찌면 이리 단순한지도 모른다. 자연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계절에 순응하며 받아들이며 사는 일 말이다. 자연을 보면 참으로 많이 배운다.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제 모양과 제 색깔로 꽃피우고 열매 맺고 제 역할을 다하고 돌아간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으로 복잡하지 않은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불안한 마음에 이것을 해야 하나, 저것을 해야 하나 안절부절못한다. 느닷없는 불청객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며 도둑처럼 찾아왔다. 일상을 빼기고 우울한 날의 연속이다. 원하던 원하지 않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게 된 우리는 그에 따른 또 새로운 삶을 찾아야 한다.

우리 부모의 시대에서는 상상도 못 했던 멀티태스킹(multitasking) 시대를 요즘 아이들은 살아간다. 한번에 2가지 이상의 일

을 동시에 처리하는 '다중작업', '다중과업화'는 현대에 얼마나 필요하고 적절한가 말이다. 하지만 그것이 가져다주는 단점,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무엇인가 빨리 선택하고 결정하고 버려버리는 것들이 그중의 하나일 것이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좋으면 빨리 친해지고 너무 가까워져 싫증 나면 생각할 시간 없이 빨리 헤어져 버리는 일 말이다. 물론, 각자의 삶에 있어 각자의 선택이며 정해진 정답은 없다.

삶이 너무 바쁘다고 생각될 때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무엇인가 신경쓰이는 일이 있을 때 나태주 시인의 '풀꽃' 시를 깊은 호흡으로 읽어보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너도 그렇다" 너무도 짧은 시 그러나 참으로 심오한 시, 깊은 생각과 호흡으로 만나야 하는 귀한 시편이다. 그렇다, 작은 풀꽃들을 자세히 들여다본 일이 있는가. 그 작은 풀꽃을 시간을 내어 오래도록 바라본 일이 있는가. 들꽃 들꽃도 이렇진대 사람 꽃이야 얼마나 더 예

쁘고 사랑스러운 일인가. 우리는 가까이에 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도 쉽게 무심함으로 지나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본다.

2017년 9월에 한국에서 '시와정신국제화센터' 오픈 행사가 있었다. 그 문학 행사에 참여했다가 나태주 시인을 뵈는 적이 있다. 작은 체구에 굵직한 선의 인상 특별히 서글서글한 눈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어른을 보니 젊은 글쟁이들이 환호성으로 반긴다. 무엇보다도 미국에서 참석한 문인들이 30여 명이 되었으니 더욱이 뵈기 어려운 분이 아니던가 말이다. 옆집 아저씨 같은 친한 해 보이는 시인은 당신의 시집 하나씩을 미국에서 참석한 문인들에게 사인해서 선물해 주신다. 그리고 당신의 시편 하나를 골라 낭독해주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다.

참으로 편안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시편이 아니던가. 특별함이란 이렇듯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일상에서의 일들이 아니던가. 다만, 그 평범함 속에서 소중함으로 받

아들이고 귀함으로 맞이하는 마음일 것이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에서는 우리의 삶이 그대로 묻어 있다. 꾸미지 않아 편안한 소박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다. 작은 것들을 소홀히 대하기 쉽고 쉬이 지나치기 쉽지만, 작은 것에서 우리는 깊은 생각을 만날 수 있는 까닭이다. 그것을 통해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리고 나와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까닭이다.

요즘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한 번쯤 다시 읽어 보고 가슴에 새기며 소중한 일상과 가까운 사람과 자연(들꽃과 들풀들)들을 생각하며 심을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주변의 텃밭이나 야산을 산책하며 흙내를 맡을 수 있다면 더 없을 축복일 것이다. 또한, 다른 이의 영혼의 세계를 산책할 수 있는 시편들을 만날 수 있다면 함께 소통하며 간접적으로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다. 문득, 나태주 시인의 '풀꽃' 시가 생각났다. 그래,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 ^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선거구호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 혁명이란 말은 역성혁명易姓革命에서 빌려왔다. 한편 경제란 말은 경국제민經國濟民을 줄인 말이라 했다. 선거관에서 자주 듣는 말이다. 선거혁명이며, 경제가 먼저라 했으니 말이다. 먹고 사는 문제는 선거를 통해 이뤄진다는 말인가?

선거철이면 짧은 말들이 난무한다. 오래전 한국야당의 선거구호인데 간명하다. '배고파 못살겠다. 갈아 보자.' 상대방의 대꾸라 했다. '갈아 봐야 소용없다. 구관舊官이 명관名官이다.' 언사는 자애롭지도 고품격도 아닌데, 재미는 있다.

삼십수년전 한국에서 일이다.

어느 대통령후보는 '보통사람'이란 슬로건을 가지고 등장했다. 말이 좋아 보통사람이지, 보통이 되려면 그것도 쉽지는 않다. 그런데 보통사람을 표방한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나태주 시인이다. 시인이 좋아하는 사람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미워할 것을 마땅히 미워하고 사랑할 것을 마땅히 사랑하는 그저 보통의 사람.

(나태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중에서)

한국에선 한창 선거유세 중이다

. 대통령을 뽑는 것인데 봄이면 선거가 있을터. 미워 마땅한건 미워해야 하며 사랑받을 만한건 분명 사랑할 수 있는 분이 당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선거에도 예전과 다름없이 경제가 주된 공약이 될것인가? 아니면 보통사람이 당선될 것인가.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란 것도 한국 선거관에 등장했던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다. 'Yes, we can.'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없고 (마가 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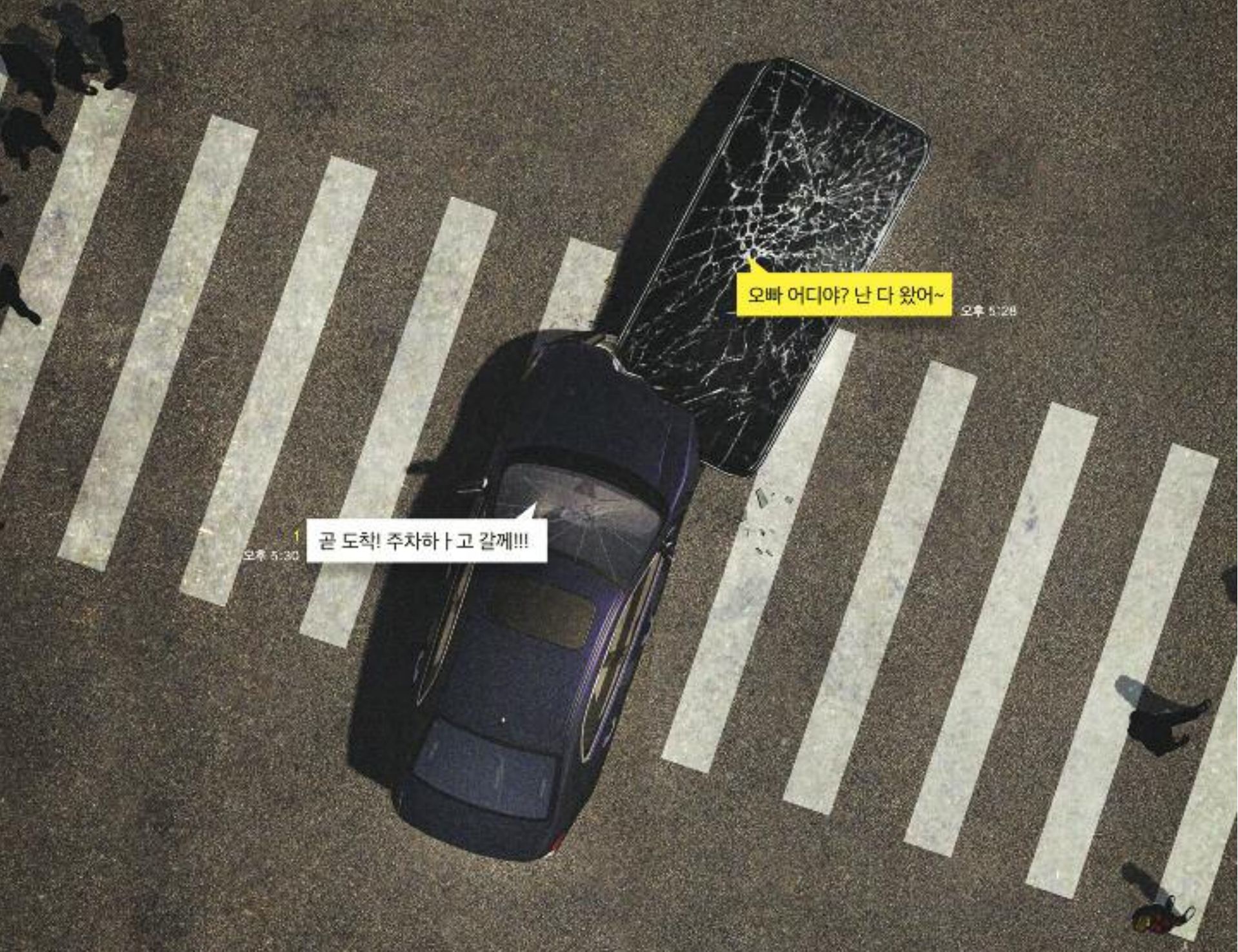
어려운 말들이 난무한다. 요즘 한국신문 방송이 그러하다. 도무지 이해난감인데다. 아우라, 대장동 개발, 등등. 내귀엔 새롭고 어

려운데 어디에다 물어볼 곳도 없다. 만만하게 네이비이고 구글이다. 혁명과 경제라는 말의 어원이다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국민 김규연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



오후 5:30

곧 도착! 주차하고 갈게!!!

오후 5:28

오빠 어디야? 난 다 왔어~

서로의 위치는 확인했지만 눈앞의 위험은 확인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보행 중 교통사고 60% 이상이 스마트폰 사용 중 발생합니다.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세란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교차 큰 가을 환절기 혈관건강 지키는 방법



이번 주 휴람의료정보에서는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혈관 건강 지키는 방법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크 강남병원 순환기내과 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9월29일은 매년 늘어나는 심혈관질환에 대한 경각심과 인식개선을 위해 세계심장연맹이 제정한 '세계 심장의 날'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2019년 '허혈성 심장질환' 진료인원은 94만2천명으로 지난 5년간 17.2%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체 연령 중 40대의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심장질환에 대한 경각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심혈관질환 기저질환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심장근육에 혈액 공급이 부족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협심증, 심근경색 등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심장과 혈관 손상을 직접적으로 일으킬 수 있어 더욱 위협적입니다. 미국심장학회(ACC,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에 따르면 심혈관질환(10.5%), 당뇨(7.3%), 만성 호흡기질환(6.3%), 고혈압(6.0%), 암(5.6%)을

앓고 있던 만성질환자 순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치사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심혈관질환이 있는 기저질환자의 경우 바이러스 감염 시 면역체계가 더 빨리 무너져 사망에 이를 확률이 높아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환절기 기온이 내려갈 때 심장건강은? 우리 몸은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접어들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혈관이 자극을 받아 다양한 질환이 발생합니다. 기온이 내려가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고 혈압이 상승합니다. 이로 인한 혈관수축은 심근경색증 등의 심혈관 질환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혈압, 당뇨 등 기온에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환절기 혈관 건강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기온이 1도 내려갈 경우 혈압은 1.3mmHg, 5도 내려가면 혈압은 약 6.5mmHg 가 올라가게 됩니다. 혈압이 5-6mmHg 상승하면 수축된 혈관이 쉽게 터지거나 혈관벽이 손상되어 동맥경화증 등 심혈관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압력이 높은 혈관벽으로 피를 내보내기 위해 심장이 비대해져 심부전의 발생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 혈압이 올라가면 받아야 하는 검사는? 기본검사로는 신장, 체중, 비만도, 갑상선기능검사, 부종여부, 심박동, 경동맥 등을 검사합

니다. 소변검사를 통해 단백뇨나 혈뇨, 당이 검출되는지 확인하고 기타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혈중지질 농도검사, 당뇨병의 유무 등을 검사합니다. 또한 좌심실의 비대등을 알아보기 위해 심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신장이나 내분비계 질환이 원인인 2차성 고혈압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호르몬검사, CT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 흡연, 당뇨병, 조기 심혈관 질환 가족력, 60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 혈압체크를 주기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 혈관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 1. 가급적 아침운동보다는 저녁운동으로 규칙적으로

조깅, 자전거, 수영 등 유산소운동은 혈관에 붙은 콜레스테롤을 연소시키고 혈액순환도 활발해져 혈관질환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과 운동 능력에 따라 강도조절을 해야 하며 아침운동은 피하고 저녁에 20분~1시간 정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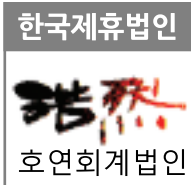
2 금연은 필수 담배는 혈관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담배 한 개비는 혈압을 10~20mmHg 가량 상승시키고 흡연으로 인한 각종 유해성분은 혈전을 유발하고 혈관벽을 손상시켜 콜레스테롤과 미세알 등 덩어리가 깨지면서 혈관이 막힐 수 있습니다.

3. 적절한 체중 조절 필요
야식 및 과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이를 낮추기 위해 분비된 다량의 인슐린은 복부비만을 일으킵니다. 복부비만은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므로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4. 15~20분간 따뜻한 물로 반신욕
36~40℃의 반신욕은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피로를 풀어주어 몸의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지방과 혈액 속 노폐물 제거에도 도움을 주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일교차 큰 가을 환절기, 혈관건강 지키는 방법"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건강검진 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 휴람건강검진 ◆

시설, 장비, 퀄리티, 검사항목, 서비스, 가격 등 해외동포분들을 위한 '비교우위' 프로그램입니다!!!

** 휴람은 상담-예약-검진진행-사후관리를 보호지역할로서 도와드립니다.
** 지금 상담을 통해 고객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검진을 결정해 보세요!!



■ 휴람 건강검진 이벤트

◀ 종합검진 기본 항목 ▶

- | | |
|----------------------------------|-----------------------------|
| 1. 이학적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안압, 혈압) | 7. 체지방검사 |
| 2. 청력검사 (순음청력검사) | 8. 부인과검사 (자궁경부암, 유방특수촬영) |
| 3. 혈액검사 (종합혈액검사 70여가지) | 9. 소화기검사 (위내시경) |
| 4. 암표지자검사 | 10. 복부초음파검사 (간장, 췌장, 복부장기등) |
| 5. 심폐기능검사 (흉부X-RAY, EKG, 노력성폐활량) |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
| 6. 요검사 | |

휴람 당일종합검진

소요시간 : 4시간 : 49만원 ~

- 기본항목 + [남] 흉부(폐)CT, 전립선초음파, 골밀도검사
- 기본항목 + [여] 갑상선초음파, 부인과초음파, 유방초음파, 골밀도검사

휴람 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60만원 ~

- 당일종합검진 + 대장내시경+ 숙박(1인실)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95만원 ~

- 숙박종합검진 + [남] 경동맥초음파, 뇌MRI, 뇌MRA
- 숙박종합검진 + [여] 뇌MRI, 뇌MRA

휴람 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225만원 ~

- 숙박종합검진 + 뇌MRI, 뇌MRA, 심장 CT, 심장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 [남] 갑상선초음파 [여] 폐CT

휴람 V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전 ~ 명일 12시경 퇴원 : 370만원 ~

- VIP종합검진 + PET-CT, 복부조영CT, 호르몬검사, 호모시스테인(중풍, 심혈관질환 인자)

휴람건강검진 네트워크 병원

휴람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중앙대학교병원(동작구 흑석역) / H+양지병원(관악구 신림역)
- 세란병원(종로구 독립문역) / 강남지인병원(논현동 학동역)
- 강남병원(용인시 신갈동 기흥역)

※ 프로그램에 따라 픽업서비스, 물품세트, 죽등을 제공합니다.
※ 상기 검진은 병원에 따라 검진 항목 및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a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화로 변경)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⁹⁹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YOUTUBE

\$34⁹⁹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영화/성인, YOUTUBE

*전상품 1년 약정

\$39⁹⁹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줌으로 들어오세요.

무료
온라인
Zoom

보스톤 교민을 위한 희소식!

슈퍼 천연 치료 세미나

일시: 2021년, 10월 2일 부터 8주간 매 토요일 오후 7시

장소: 컴퓨터나 전화기로 참여

줌아이디:8458453004, 줌비밀번호: 7777

강사: 천연치료 전문강사, 죠앤나김 선교사외 다수
채식요리강사, 글로리아배외 다수

주제: 코로나 예방, 건강요리, 지독한 각종질병 치료법

문의: (781-801-0993)

접수/등록: (781-795-2056)

주최: 히스핸드 코리아 의료선교사 운동본부

매 강의후 질의 응답을 통해 질병에 대하여 개인상담을 해드립니다



HOME RENOVATION
NAMU

나무

- 국제기능올림픽 목재분야금메달리스트
- 대통령 훈장 수훈
- 15년 이상의 경력



WHY NAMU



정직하고
디테일한 견적



고객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진행



체계적 관리를 통한
계약 기한 내 완공

SERVICE

- ✓ 하우스 레노베이션
- ✓ 커스텀 캐비닛, 데크
- ✓ 원목 테이블, 가구

견적부터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양심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무료
견적
상담

🌐 www.namuma.com
 ✉ info@namuma.com
 ☎ 617-775-4771
 📍 58 Pulaski st, Peabody, MA 01960
 📷 @namu_finewood

INSTAGRAM



THE PRO REALTY GROUP

수잔 부동산

풍부한 경험으로 믿을 수 있는
한인 부동산 회사

T.339.224.1512

245 First Street Riverview II 18th floor Cambridge, MA 02142



Susan Ahn

Broker & Principal

susan@prorealty.group

Kakao ID : susan1223



1

탁월한 협상

오랜경험과 전문적인 팀워크로 구성

2

바이어, 셀러

전문적 지식과 정확한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

3

이주자 상담

타주 & 한국 투자 상담

4

전문적인 일처리

30년 경력 부동산전문 변호사 파트너와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 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겠습니다!